

카카오톡으로 만나는 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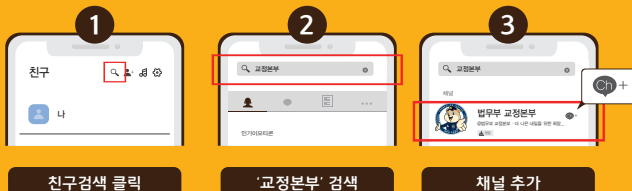
‘교정보본부 민원톡’ 오픈!

전국 교정시설, 접견 안내부터 교정보본부의 다양한 소식까지
교정행정과 관련된 궁금증,
이제는 '교정보본부 민원톡'에게 물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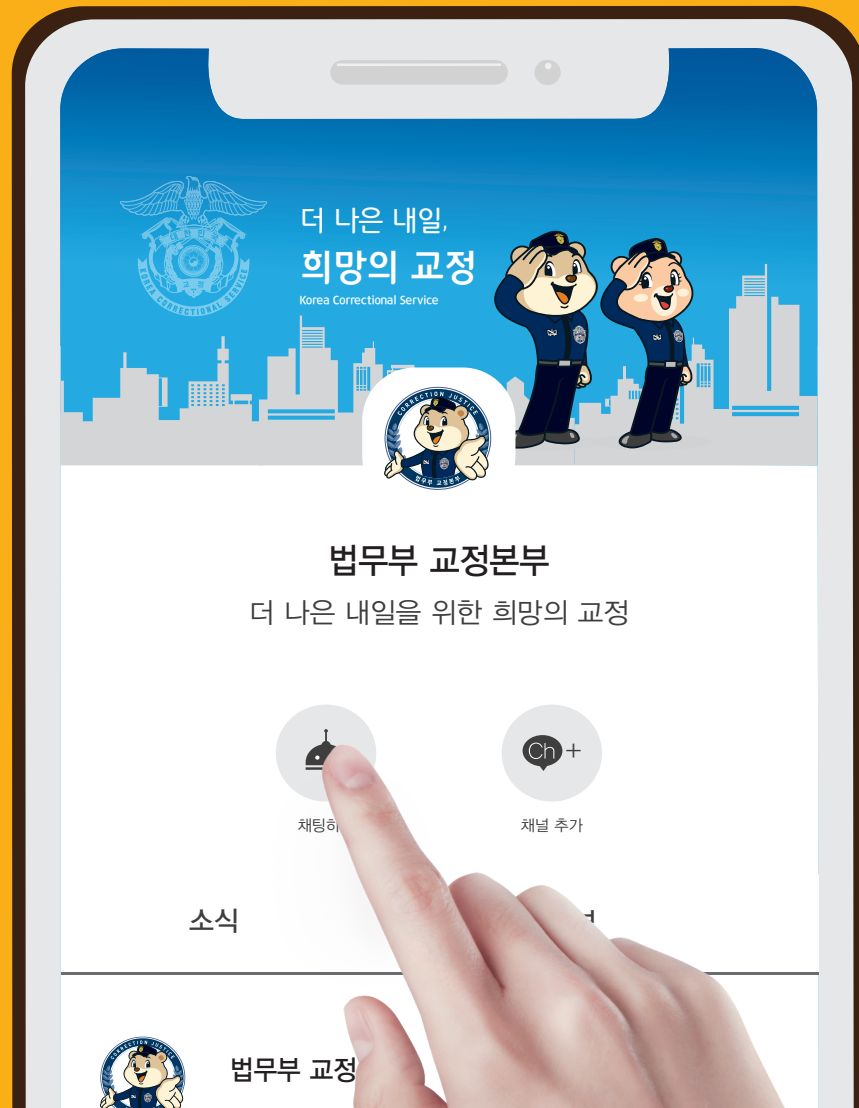
까톡

이렇게 하세요

먼저, 카카오톡에서 '교정보본부'를 검색한 후
채널 추가를 해주세요. 채널 추가 후
'채팅하기'를 터치하면 준비 끝!



민원인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교정보본부 민원톡'의 질의응답 기능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됩니다.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2020.06 VOL.529

개인과 조직을 변화시키는 힘:
에너지를 시너지로 만드는 마법,

추진





6월호 <교정>의 테마는 추진력입니다. 추진력은 '목표를 향해 앞으로 밀고 나가는 힘'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가치있는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교정인의 추진력을 기대합니다.



QR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참여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참여코너 신청과 독자 의견 송부가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교정 2020년 6월호(통권 529호) 64권 6호

www.corrections.go.kr

발행인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인쇄 서울남부교도소

기획디자인 하나로에드컴 02)3443-8005

월간 교정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
www.facebook.com/mojcor

유튜브 주소
www.youtube.com/교도소24시

웹진 주소
http://cowebzine.com/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를 검색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잇다

04

인트로

추진력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하여 돌진

06

테마

추진력에 엔진을 달다

08

피플

음악가 장사익



12

포커스

추진력에 대한 고정관념, 무데뽀와 불도저

희망을 잇다

16

소원을 말해봐

세상을 바꾸는 힘, 봉사를 꿈꾸다

20

즐거운 심포

청량감 가득한 대숲 산책

내일을 열다

24

힐링타임

유월의 굿모닝

26

심리학 열전

사회적 자존감과 웰빙

28

보라미, 보드미와 함께

3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교정공무원의 고민상담소

32

맛남의 교정

간단하게 만들어 먹기 쉬운 주먹밥

34

방구석 1열

<1917> vs. <라이언 일병 구하기>

36

트렌드 이슈

소유하지 않는다, 스트리밍 라이프



40

전국 교정인 자랑
뒷전 인생

42

희망의 백일장
엄마의 고깃배

44

교정은 지금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언론브리핑

48

교정리포트

54

본부 소식

56

카드뉴스

58

일선기관 소식

63

모범공무원

64

칭찬합시다

65

다른 그림 찾기



알립니다 이번호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교정이 쓴다'와 '열린 교정'은 쉬어갑니다.

推進力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하여 돌진!

“평범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을 구별하는
한 가지는 바로 마음에 품은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추진력이다.”

제프 샌더스의 <아침 5시의 기적> 중에서



추진력의 물리적 의미는 '물체를 밀어서 앞으로 내보는 힘'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싶은 추진력은 '목표를 향하여 밀고 나가는 힘'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하여 밀고 나가다가도 종종 장애에 부딪치면 주저앉아 버리곤 합니다.
주저앉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달릴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추진력입니다.
추진력의 중요성에 대해 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빌려라, 재능이 없으면 빌려라. 하지만 추진력이 없다면 '그만둬라!'"
지혜나 재능은 타고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추진력은 '우리 속의 힘'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스스로를 믿는다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밀어붙이지 않으면 평범해집니다.

추진력에 엔진을 달다

성공한 리더들 중에서는 스스로의 강점을 '추진력'으로 꼽는 이들이 많다. 그래서 추진력이라고 하면 카리스마로 좌종을 압도하는 강한 이미지부터 떠올린다. 하지만 추진력이란 우리의 가슴 속 엔진 같은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천릿길을 걷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을 때 발휘되는 평범한 힘도 추진력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가슴 속에서 시동을 거는 엔진이 보다 강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단력을 전제하라

로켓의 엔진처럼 단숨에 치고 올라가고, 똑심있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추진력이 그저 '힘센 불도저'로 폼하되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결단력이다. 추진력이 빛을 발하려면 과감한 결단력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영국의 젊은 백만장자 롭 무어가 수많은 부자나 기업가를 만나 발견한 행동 습관을 소개한 책 <결단>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한다. 책의 내용에 따르면 비슷한 조건에서도 커다란 성공을 만들어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남다른 결단력과 추진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때 결단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다. 저자는 추진력을 가지려면 '거대하고 위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착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당장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지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코끼리를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 먹을 것인가. 가장 완벽한 방법은 한입에 꿀꺽 삼켜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 번에 한 입씩 먹는 수밖에 없다. 사람은 어렵고 중요한 일일수록 미루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힘든 일일수록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려면 결단력이 전제된 추진력이 꼭 필요하다.

긍정의 추진력을 높여라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주어진 일을 추진하는 데 힘들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한다. 세상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고 주어진 환경은 그리 다르지 않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공의 길을 개척해간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는 걸까. 세계적인 경영석학 마셜 골드스미스는 '모조(Mojo)'를 꼽는다. 모조란 한마디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이자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성공 에너지를 말한다. 원시종교에서 유래된 말인 모조는 원래 주술 의식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부적을 의미하지만 오늘날 비즈니스업계나 스포츠에서는 '긍정의 추진력'이란 뜻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모조가 높은 사람은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 데 몰두하는 반면 모조가 낮은 사람은 좌절감에 빠져 아무 일도 못한다고 설명한다. 성공하는 사람이나 성공하는 조직, 또는 위기와 실패 속에서도 성과를 창출하고 성공을 이끌어내는 사람, 한계를 뛰어넘어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을 관찰하면 하나같이 '긍정의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긍정 에너지는 동료와 조직에게



지 좋은 영향을 주어 조직의 성과에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다행인 것은 '긍정의 추진력'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으나 다만 발동시키지 못할 뿐이라고 한다. 그러니 된다는 믿음, 하겠다는 의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한다. 긍정의 추진력을 '모조' 즉 부적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추진력에 엔진을 달아라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력의 동력을 잃지 않으려면 평소에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첫째, 구체적인 마감시한을 설정해 두자. 누구나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게 마련이다. 구체적 기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일을 끝내는 비율이 확연히 다르다. 마감기한을 당겨 설정하면 효과적이다. 스스로의 의지보다 강력한 것은 실질적인 마감기한이 주는 압박이다. 둘째, 무슨 일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는 쉬운 일부터 시작하자. 시작이 반이니 우선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일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무 어려운 업무나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면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 쉬운 일부터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업무를 미루는 빈도도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셋째, 동료의 힘을 빌려라.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은 당신의 덜덜 거리는 추진력에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해줄 것이다. 특히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하면 동기부여가 된다. 사람들이 굳이 도서관으로 몰려드는 것도 이런 엔진을 달기 위해서이다. 넷째, 완벽주의를 버려야 한다. 리더가 추진력을 발휘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다. 결정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아직 그럴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자칫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추진력을 높이면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상으로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노래에 숨을 불어넣는다 노래로 숨을 쉬다

음악가 장사익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애국가를 불러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준 사람은 바로 소리꾼이라 불리는 장사익 씨였다. 그는 한복을 입고 폐회식장을 울릴 만큼 웅장하게 애국가를 부르며 한국의 전통과 기상을 보여줬다. 압도적인 목소리와 성량으로 무대를 채우는 모습은 주도적인 삶을 위해 추진력 있게 걸어온 그의 내면을 보여주는 듯했다.

중심을 잡고 나아갈 것

소리꾼 장사익 씨는 1995년 마흔 여섯 살에 ‘하늘 가는 길’을 발표하고 가수가 됐다. 가수가 되기 전에는 15가지 직업을 가졌었다는 사실이 여러 인터뷰에서 언급된 바 있다. 보험회사, 카센터 등을 돌고 돌면서도 평생 정착할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낸 것은 태평소, 대금, 단소 같은 악기와 노래 배우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 그는 오랜 시간 공을 들였고 포기를 몰랐다.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을 3년만 해보자’고 결심을 굳힌 후 태평소 연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전국민속경연대회 대통령상, KBS 국악대상 금상 등을 수상했다.

그가 가수로 자리매김한 것은 우연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은 덕이다. 여느 때처럼 동료들과 공연 후 뒤풀이를 하던 자리에서, 그가 부르는 노래에 감탄한 동료들이 제안했다. 연주자 말고 가수 장사익으로 무대에 제대로 서보자고. 일사천리로 앨범이 제작됐고 공연장에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관객이 찾아와 그의 목소리에 빠져들었다. 무대에 감동한 사람들은 장사익이



라는 이름 앞에 기꺼이 ‘소리꾼’이라는 뜻깊은 수식어를 선사했다. 2006년에는 국회 대중문화 미디어대상 국악상을 받기도 했다. 자신의 길을 찾으려면 추진력 있게 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의 삶이 보여준다.

먼 길을 돌아 꿈을 이룬 그는 “인생은 자신의 길이 어디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나아갈 길을 고민한다. 교정인들도 공감하겠지만 그 길이 내내 직선일 수는 없다. 고운 길을 걷다가 굽은 길을 만나게 되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어진다. 막다른 길과 부딪힐 수도 있다. 시행착오로 뒷걸음질 쳐야 할 때도 있고, 달갑지 않은 방해의 목소

리가 들려올 수도 있다. 마침내 옳은 방향을 찾았다는 성취감에 희열을 느낄 때도 올 것이다. 목표가 있다면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그가 말하는 자신만의 길이란 “자신감을 갖고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는 길”이다. 어떤 것이 내 인생에서 더 큰 값어치가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런 경험이 있기에 그에게 '추진력'은 넘어졌을 때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 미래를 긍정할 수 있는 에너지라는 의미를 담은 말이다. "난 멀었어, 난 부족해 이런 말 말고 나는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긍정이 필요해요.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에게도 이런 격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교정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겠지요.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 주세요."

교정인들이 마음에 새기면 좋을 조언이다.

시로 노래를 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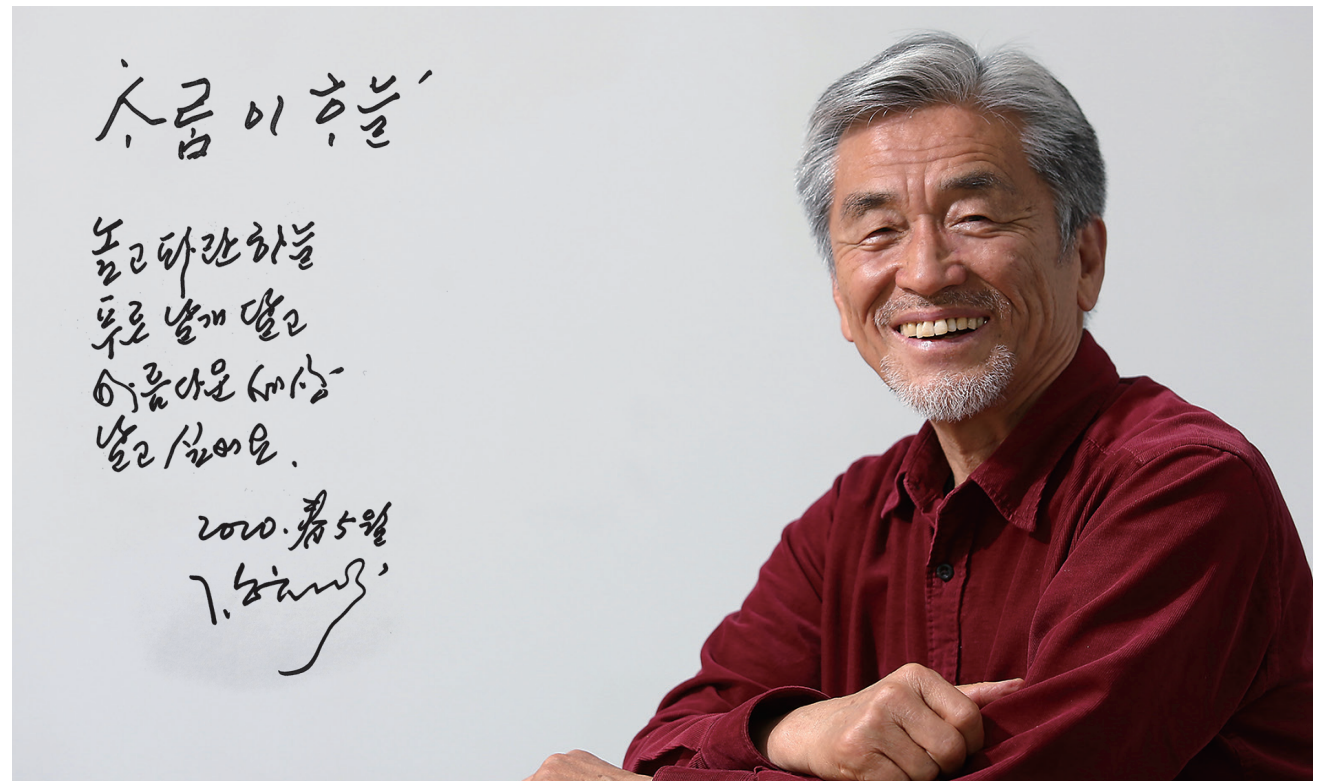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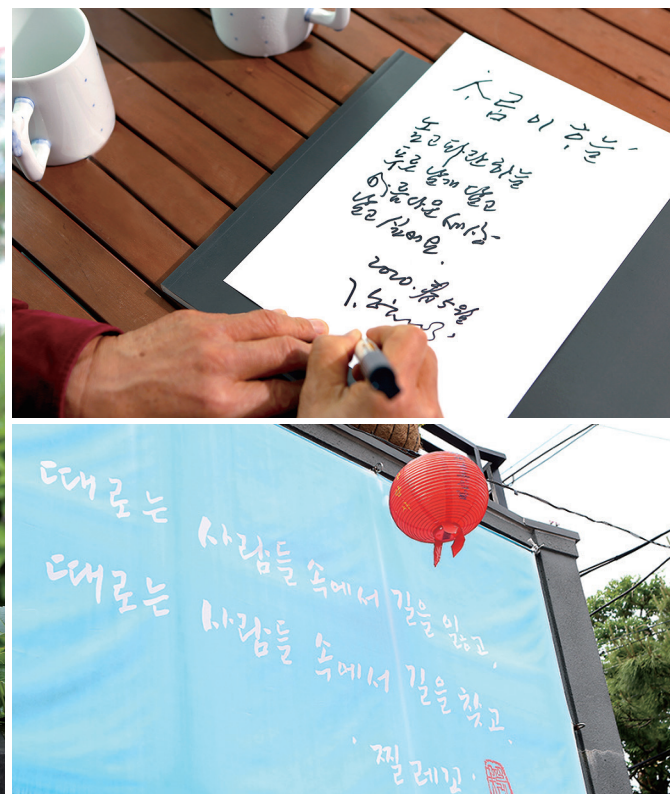
그가 부르는 노랫말은 시어에서 가져온 경우가 많다. 우리말로 쓰인 많은 시 중에 깊이 공감되는 작품이 그의 노래로 다시 태어난다. "내 이야기라고 마음에 와닿는 작품을 만나면 거기서 얻는 깨달음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시라도 공감되지 않으면 저와는 인연이 아닌 거죠. 교정인들은 어떤 시에 공감할지 궁금해지네요." 가장 최근 발매한 앨범은 2018년 말 발표한 9집 <자화상>이다. 윤동주 시인의 시 '자화상'을 노랫말로 썼다. 기형도 시인의 '엄마걱정', 허영자 시인의 '감'도 노래가 되어 이 앨범에 실렸다.

노래 안에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아픔을 녹여 모두를 위로하는 힘도 그간의 경험에서 나온다.

노래에 생명력이 있다면 단연코 그의 목소리에서 탄생했을 것이다.

"자화상은 언젠가 내가 쓰려고 한 글을 윤동주 선생이 먼저 썼다고 느낄 만큼 깊이 공감되는 시였어요. 꼭 노래로 만들어야 했죠. 조국을 잃은 시대적 아픔과 그림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빚댄 시예요. 거울 속에 보이는 내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늘 부족한 자기 모습에 한숨을 쉬거나 짜증을 내요. 이 시를 여러 번 읊어보며 깨달은 건 나의 부족함마저도 아끼고 스스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정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겠죠?"

그는 옛날부터 시를 좋아했다. 시를 두 번 세 번 읽고 생각하면서 시어가 품고 있는 의미들을 이해하는 것을 기꺼이 즐긴다. 그가 노랫말 삼은 시들의 공통점이라면 '마치 내 이야기 같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자연과 삶, 인생의 모든 느낌들이



시라는 형태에서 나아가 그의 노래가 된다. 시를 읊조리면서 운율을 만들어 감정을 담고 고저장단을 넣고, 악기를 더해 하나의 곡을 완성한다. 운율을 만들 때 한 번에 완성도 높은 작품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의 추진력이 발휘될 때가 바로 이 순간이다. 앞뒤 마디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속 해서 불러보고 더 나은 멜로디는 없는지 변주한다. 노랫말과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몸놀림까지 합쳐지면 "저에게 노래는 하나의 종합예술"이라고 말하는 그의 말을 이해하게 된다. 구전 민요가 악보 없이 입에서 입으로 세대를 건너 전해져 온 것처럼 그는 자신이 만드는 노래가 구전 방식과 더 가깝다고 말했다. 악보에 음표를 그려 넣어 음악을 만드는 방식과 다르다는 뜻에서 그는 자신이 곡을 만드는 것을 '노래를 엮는다고' 표현한다.

노래 안에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아픔을 녹여 모두를 위로하는 힘도 그간의 경험에서 나온다. 노래에 생명력이 있다면 단연코 그의 목소리에서 탄생했을 것이다.

사명감과 추진력으로

코로나19로 많은 공연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그 역시 계획한 일들이 흐트러졌지만 이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몇

년 전 성대결절로 수술한 후로 목관리도 더욱 철저히 하고 있다. 올 연말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단독 공연을 열 예정이라 연습에 매진 중이다. "뒤통지 비우는 순간이 있어야 다시 채울 수도 있는 거죠. 요즘은 제 안에 새로운 음악을 채워가는 중입니다. 다만 조금 급해 하진 않아요. 천천히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지나온 시간에 충실하면서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 그 길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이렇게 하면 누구라도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 그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교정공무원들에게 응원하며 메시지를 보냈다.

"사람들은 편편하고 멋진 길로만 가고 싶어 하지만 울퉁불퉁하고 매끄럽지 않은 길을 갈 때가 더 많아요. '교정'은 이런 길을 빠르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인생길을 힘들게 걷고 있는 수용자들을 잘 인도해주세요. 사명감을 갖고 일을 추진해 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 즐거워지고 그 노고와 언젠가 복으로 돌아올 겁니다."

추진력에 대한 고정관념, 무데뽀와 불도저

추진력이라는 말 앞에는 불도저나 무데뽀 같은 수식어가 종종 붙곤 한다. 추진력이란 다듬어진 꽃길을 달리는 대신 없는 길을 새로 만들고 가로막힌 장벽을 만나면 돌파하며 나아가는 불도저 같은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추진력의 의미도 달라지고 있는 듯하다.

추진력 그리고 기업가 정신

추진력을 설명하는 말에는 유난히 속되게 이르는 표현이 많다. '무데뽀 정신'이니 '맨땅에 헤딩'이니 하는 말들이 추진력을 설명할 때 양념처럼 들러붙는다. '불도저' 같은 힘도 추진력의 다른 말처럼 쓰인다.

데뽀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사용하는 총 이름인 철포(鐵砲)의 일본식 발음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철포도 쟁기지 않고 전쟁에 나서는 것을 일러 무데뽀라고 했으니 누군가가 '당신은 무데뽀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면 마냥 으쓱해서는 안 될 말이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계획성 없이 무작정 밀어붙이는 성향의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국어 사전에도 '무데뽀'는 일의 앞뒤를 잘 헤아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덤비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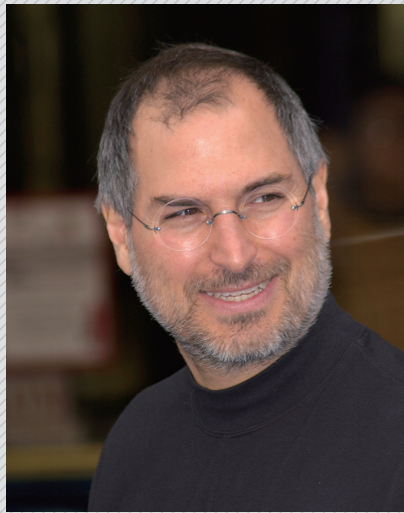
드라마 제목이기도 한 '맨땅에 헤딩'이라는 표현도 일단 들어대고 보는 정신을 비유한 용어이다. 글자 그대로만 해석해도 자해에 가까운 행동이다. 심지어 '불도저'는 어떤가. 눈앞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짓밟는다는 뜻이니 이것은 자해를 넘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까지도 추진력으로 용인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쯤 되면 '목표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는 힘'이 과연 몹쓸 힘이란 말인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추진력은 무데뽀와는 명백하게 다른 힘이다. 국내외의 한국학자들은 "한국인의 놀라운 추진력 속에는 사안에 대한 통찰력과 더불어 엄밀한 계산이 있기 때문에 '무데뽀'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어떤 일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불도저'가 아니라 자신과 공동체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의지로 난관을 헤쳐 나가는 '할 수 있다'의 정신이 곧 '추진력'이라는 것이다.

추진력에 도전정신이 더해지면 기업가 정신이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2002년 저서 '넥스트 소사이어티'에서 기업가 정신이 가장 높은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 한국전쟁으로 산업기반이 거의 무너졌던 최빈국이 40여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출중한 기업가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모험과 도전', 한번 기회를 포착하면 어떤 위험과 난관이 닥쳐도 이를 극복하고 사업화하려는 '불굴의 정신'. 드러커가 정리한 기업가 정신은 한국의 창업 1세대들이 공통적으로 내면화하고 있던 핵심가치들이었다. 자고로 추진력의 원류를 찾자면 이런 데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목표를 향해 독하게 정진하는 리더십, 스티브 잡스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 버려졌고 가난한 집에 입양되어 배고프게 자랐고 대학은 중퇴했으며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난 남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담대한 결정력과 맹렬한 추진력을 소유한 CEO. 이 모두가 스티브 잡스라는 한 인물을 설명하는 말이다. 잡스는 독단적인 성격으로 인해 수시로 동료들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스 생전의 애플에는 언제나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수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잡스는 뭔가 해낼 것 같은 믿음을 주었다.”고 회상한다. 그에게서 추진력을 읽었다는 뜻이다.

잡스는 자신의 신념과 목표를 향해 ‘독하게’ 정진하는 스타일이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만

큰 한치의 양보나 타협이 없었고, 놀라울 정도로 대범했다. 목표는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한 집념으로 집요하고도 지지 않는 추진력을 보여주었다. 확고한 신념으로 한번 내린 결정에는 단호하고 일관된 행동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가 지닌 독함은 조직 전체에 영감을 불어 넣었다. 개인의 이익보다 조직, 고객, 사회, 인류를 바라보는 한 차원 높은 시야는 오히려 그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가 보여준 열정은 조직 전체를 공명시켰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했다. 잡스의 추진력이 애플을 존경받는 기업으로 키워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경제사에 있어서 현대그룹의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의 추진력도 오래 회자되고 있다. 그를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동료 기업인조차 ‘결단력과 추진력의 화신’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이다. 지난 1971년 현대가 조선업에 진출할 당시 정주영 회장은 배 한 척 만들어본 경험도 없이 그리스 선주를 만나 5백원권 지폐 한 장으로 수주를 따냈다. 이 일화는 그만의 두드러진 배짱은 물론, 좌절을 모르는 추진력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극동의 이름 모를 나라 기업을 어떻게 믿겠느냐며 돌아서는 선주의 말에도 주눅들지 않았다. 대신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보이며 “한국은 1500년에 이미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열정을 토해낸 끝에 돌아서는 선주의 발걸음을 돌려세웠다.

정주영 회장의 추진력에 대해 ‘무테뽀 정신’이 발휘된 추진력이라고 표현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그는 평소 “지혜를 모아 방침을 세우고 하면 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그는 대책 없이 맨땅에 헤딩한 것이 아니었다.

세종이 보인 강철 같은 추진력

왕으로서, 정치가로서 세종의 위대함을 부인하는 한국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훈민정음 창제를 비롯해 세종이 이룬 찬란한 민족문화의 성과들은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다. 이러한 성과를 이룬 과정을 들여다보면 세종의 추진력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말끝마다 ‘아니되었습니다’를 앵무새처럼 읊조리며 발목을 잡는 신하들의 반대를 뚫고 이룬 성과들이 팔할이기 때문이다. 세종의 추진력을 보여주는 최고의 일화는 훈민정음 창제다. 신하들은 ‘상스러운 무익한 글자’라며 창제를 반대하는 상소를 끊임없이 올렸다. 하지만 세종은 끈기있게 훈민정음을 완성했다. 완성하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 훈민정음을 위해 정음청을 설치하고 훈민정음 관련 사업을 전담하도록 했으며 하급관리인 서리를 뽑는 시험에 훈민정음을 포함시켰고 일반 백성들이 관가에 제출하는 서류를 훈민정음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그렇게 해서라도 훈민정음을 널리 퍼뜨리고자 했던 세종의 독심을 짐작할 수 있다.

인재 기용에서도 세종은 추진력의 면모를 보였다. 특히 장영실을 기용할 때다.

장영실은 동래의 관노 출신이었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장영실의 아버

지는 본래 원나라 소주·항주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기생이었다. 요

즈음으로 보면 아버지가 중국인인 다문화가정 출신이다. 당시로

서는 어머니의 신분 때문에 노비가 된 인물이었으니 신하들의

반대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세종은 장영실을

끝까지 기용했으며 덕분에 수많은 발명의 꽃을 피웠다.

세종의 추진력은 재위 중반기가 되어도 달리지 않았다. 특

히 북방영토 경영에서도 4군6진을 개척하는 추진력을 발휘

했다. 북쪽 끝에는 산밖에 없는데 개척해서 뒤에 쓰냐며, 모

든 신하들이 반대했던 일이었다. 황희조차 여진족 때문에 인

명 피해가 클 테니 하지 말자고 간언했으나 세종은 김종서에

게 북방영토의 중책을 맡기고 여진족을 몰아낸 자리에 백성들

을 이주시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

계로 하는 국경선을 확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세상을 바꾸는 힘, 봉사를 꿈꾸다

여주교도소 교감 정춘교

나이가 들고 퇴직이 가까워 올수록 노년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계획하게 된다. 어떤 이는 새로운 직업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가족들과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것을 희망한다. 퇴직이 3년밖에 남지 않은 여주교도소 정춘교 교감은 일찍부터 퇴직 후 남은 인생을 봉사에 전념하겠다고 계획했다. 지금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는 그녀다운 생각이다. 최근 코로나19로 꾸준히 실천하던 봉사를 중단하게 되자 또 다른 봉사활동을 계획했다는 정춘교 교감의 뜻 깊은 하루를 함께했다.

아이들의 기쁨은 곧 나의 행복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정춘교 교감은 어느 날 딸아이 덕분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세상을 바꾸는 착한 장난감 만들기 캠페인’을 보게 되었다.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직접 장난감을 만들어 선물하는 참여형 기부활동이다. 장난감 만들기 kit를 구입해 바느질로 인형을 완성해 보내면 전 세계 장난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수익금은 깨끗한 식수, 교육, 보건위생 등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착한 장난감 만들기 캠페인을 알게 된 순간,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 세계에 굶주림에 고통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저의 작은 도움의 손길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행



* 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 인물이 정춘교 교감이다.

복해질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정춘교 교감이 캠페인을 본 순간, 꼭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또 하나의 계기가 있다. 평소 방글라데시에 있는 보라 초등학교를 후원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보라 초등학교는 지난 2007년 경 함께 근무하던 동기가 사고로 딸을 잃고 그 부의 금으로 방글라데시에 설립한 의미 있는 학교다. 그녀는 동료가 슬픔을 겪은 후 방글라데시에 학교를 세워 봉사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꾸준히 후원을 시작했다. 일하랴, 아이들 키우랴, 워킹맘으로 생활이 바빠서 아직까지 한 번도 방글라데시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항상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일까. 인터넷 속 저개발국 빈민가 아이들을 보고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아이들 생각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 보세요. 너무 예쁘죠? 제가 후원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아이들이 만들어서 보내준 파우치랑 장식품이에요. 이걸 받았을 때 정말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만든 장난감을 받을 아이들도 저와 같은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정춘교 교감은 한 번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저 먼 이국땅에서 보내온 아이들의 선물을 받고 기뻐했던 자신처럼,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을 되돌려 주고 싶은 바람을 담아 인형 만들기를 시작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아 만드는 장난감

정춘교 교감의 제안에 여주교도소 직원들로 구성된 여주보라미

봉사단이 오늘 체험에 함께했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던가. 여러 사람과 함께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06년 창단된 여주보라미봉사단은 그동안 연탄배달, 도배봉사, 다문화가정 후원, 오산초등학교 급식 후원, 여주제일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정춘교 교감 또한 시간이 날 때마다 봉사단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봉사활동을 못 하고 있어요. 매달 장애인 복지관을 방문해 무료 급식 봉사를 하고 있는데 복지관 자체가 계속 휴관이거든요. 그런데 정춘교 교감이 이런 뜻 깊은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오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주보라미봉사단 회장을 맡고 있는 어윤식 교위는 남을 돕는 일인데 내 일 네 일이 어디 있느냐며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이야기했다. 모두 한 마음일까. 정춘교 교감이 장난감 만들기 kit를 테이블에 꺼내놓자 모두 의욕적으로 바느질을 시작했다. 노란 기린, 분홍색 코끼리, 연두색 개구리, 하늘색 돌고래 등 미리 재단해 온 알록달록한 동물 모양의 천을 두 개 맞대어 바느질을 하다가 안에 솜과 방울을 넣어 마무리하는 것이다. 총20개의 장난감을 완성해야 하는데,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바느질이 익숙하지 않으면 꽤 어려운 작업이다. 바늘땀이 엉성하거나 솜이 빠져나오면 금세 망가지기 때문이다. 정춘교 교감은 직원들에게 만드는 과정을 손수 설명하면서 꼼꼼히 바느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이들이 갖고 놀 건데 이왕이면 예쁘고 견고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바느질이 꼼꼼해야 오래 가지고 놀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에게는 흔한 인형이지만 해외 빈민국 어린이들은 별다른 장난감이 없어서 길가의 쓰레기를 가지고 논다고 하더라고요. 서툰 솜씨지만 저희가 만든 인형이 먼 나라 아이들에게 소중한 장난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 이국땅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다

본격적으로 인형 만들기가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정춘교 교감을 부르는 소리로 떠들썩했다. 눈이 침침해 바늘귀를 못 꿰는 직원, 매듭을 못 짓는 직원, 실수로 바느질을 잘못 한 직원들이 모두 정춘교 교감에게 SOS를 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정춘교 교감 옆에는 더 바쁜 이가 있다. 바로 오늘 엄마를 돕기 위해 함께 온 딸, 혜운 씨다. 정춘교 교감은 직원들의 부름에 달려가서 열심히 도와주다가 막히는 것이 있으면 딸을 불렀다. 그러면 딸 혜운 씨가 바늘귀도 꿰어주고 매듭도 알려주고 실수로 바느질을 풀어 교정도 해주면서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다. 혜운 씨는 어릴 때부터 엄마를 따라 다니며 봉사를 해 온 덕분에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봉사활동을 할 때면 당연한 듯 엄마와 함께 한다. 정춘교 교감이 강릉교도소에서 근무할 때 봉사하던 영어원에도 함께 다녔다. “딸이 중학생 때부터 봉사할 때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덕분에 지금도 봉사활동 하러가자고 하면 정말 좋아해요. 사실 오늘 봉사도 딸의 도움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어제 바느질할 천

을 재단하느라 4시간이나 걸렸거든요. 그것도 딸이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아마 혼자였다면 못 했을 거예요.” 정춘교 교감은 엄마를 도와 열심히 바느질하는 딸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인형이 하나 둘 완성될 썸 동료들이 앓는 소리를 냈다. 오랜 시간 앉아 집중해서 바느질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모양이다. 그래도 솜을 뽕뽕하게 넣은 귀여운 동물 장난감이 완성되자 너무 예쁘다며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딸랑딸랑. 완성된 인형을 흔들어보니 맑고 고운 방울 소리도 기분을 좋게 한다. 정춘교 교감은 완성품을 보며 직원들이 정성을 들인 만큼 얼마를 줘도 아까워서 못 팔 것 같이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봉사에 대한 갈망은 항상 있어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제 마음까지 기쁘게 하거든요. 퇴직 후에는 꼭 방글라데시에 직접 가서 봉사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체험으로 조금이나마 그런 갈망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만든 장난감이 빈민국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아이들이 오늘 만든 장난감을 받고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정춘교 교감의 마음까지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소원을 말해봐’ 코너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독자엽서 또는 이메일(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로 신청해 주세요. QR코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주인공에게는 특별한 하루를 선물해 드립니다.





청량감 가득한 아홉산숲 내 대숲

‘사각사각’ 시원한 소리, 청량감 가득한 대숲 산책



벌써 초여름 더위가 기승인 지금, 자연스레 시원한 곳을 갈망하게 된다. 청량감을 만끽하기에 울창한 숲만 한 곳이 있으랴. 그중에도 대숲은 일반 숲보다 음이온 배출량이 많아 맑고 시원한 느낌이 또렷하다. 대숲에 들어서면 사방이 푸른빛이라 눈이 편안해지고 바람에 일렁이는 댓잎 소리에 귀가 맑아지며 청정한 공기에 코가 시원해진다. 오감으로 청량감을 느끼고 싶다면 대숲 산책이 제격이다.

신비한 기운 가득, 부산 기장 아홉산숲

부산시 기장군에는 아홉산(361m)이라는 순우리말 이름을 가진 산이 있다. 아홉 골짜기를 품고 있다는 뜻에서 유래했다. 동네 뒷산 같은 정겨운 산자락에는 청정 숲이 자리한다. 아홉산숲으로 알려진 이곳은 남평 문씨 일가가 9대에 걸쳐 약 400년 가까이 가꾸고 지켜왔다.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의 역사적 굴곡 속에서도 고집스럽게 지켜낸 숲이다. 일제강점기 수탈이 극에 달하던 때에도 문씨 일가는 늦그릇 같은 세간은 내줄 지언정 나무는 지켜냈다. 숲의 총면적이 52만㎡이며 인공림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 지금의 숲을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를 설명해주는 부분이다.

2000년대 들어 대대적인 생태 현황 조사를 진행한 결과 숲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고 산림청이 '22세기를 위해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숲의 가치에 비해 인지도는 낮은 편인데 숲의 생태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일반에 숲을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3년 영화 <군도>가 촬영되면서 대중에게 존재감을 알리기 시작했고 2016년 들어서야 일반에 개방했다. 대나무가 뿔뿔한 숲의 신비로운 풍경 덕에 많은 영화, 드라마

마가 이곳을 촬영지로 선택했다. 가장 최근작은 이민호, 김고은 주연의 드라마 <더 킹 : 영원의 군주>. 드라마에서 아홉산숲은 평행세계로 가는 '차원의 문'이 있는 신비의 공간으로 등장한다. <더 킹 : 영원의 군주>를 비롯해 여러 영화와 드라마가 촬영된 곳은 아홉산숲 내 굿터 맹종죽숲이다. 200여 년 전 조성됐다고 전하는 굿터 맹종죽숲은 길고 깊다. 죽순대라고도 불리는 맹종죽은 높이 10~20m, 지름 20cm 정도까지 자라며 대나무 중 가장 굵다. 그런 맹종죽이 촘촘한 숲에는 한낮의 뜨거운 별도 쉬이 침투하지 못한다. 사방에 대나무가 빼곡한데 희한하게도 숲 가운데에 동그랗게 빈 곳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아홉산 산신령의 영험한 기운 때문에 이곳에는 대나무가 자라지 못한다고 믿어 굿터에 있을 때 치성을 드리거나 굿을 여는 공간으로 활용했다고 전한다. 굿터 맹종죽숲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아홉산숲에는 굿터 맹종죽숲 외 약 3만3000㎡ 규모의 맹종죽숲이 한 곳 더 있고 금강송 보호수림, 편백나무숲, 전나무길, 삼나무숲 등 다양한 수종이 공존한다. 주말보다는 평일에 방문해야 여유롭게 숲 산책을 즐기기가 좋다.

대숲 여행 대명사, 담양 죽녹원

대숲 여행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대나무의 고향 담양 소재 죽녹원이다. 2005년 개장한 죽녹원은 약 31만㎡ 면적에 대나무숲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부대 시설을 갖췄다. 입구부터 대나무가 울창하게 늘어서 우리나라 대표 대숲의 위용을 뽐낸다. 매표소를 지나면 바로 산책로가 시작된다. 드넓은 대숲에는 방문객이 편안하게 죽림욕을 즐기도록 2.4km 길이의 산책로를 조성했다. 구간마다 테마를 넣어 걷는 재미를 더했다. 운수대통 길, 사랑이 변치 않는 길, 추억의 색길, 철학자의 길 등 총 8개 길로 이뤄진다. 어느 길을 따라가든 시원하게 솟아오른 대나무가 함께한다.

죽녹원을 걷다 보면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만나게 된다. 대나무로 만든 독특한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짧은 초미니 돌레길이라는 성인봉 돌레길도 걸어본다. 총 길이 50m의 성인봉 돌레길 앞에는 '세 바퀴를 돌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글귀가 쓰여 있다. 짧은 돌레길이니 누구나 부담 없이 세 바퀴씩 돈다. 소원을 빈 후에는 정상에 올라 볼 것. 야트막한 높이지만 전망이 일품이다. 사방으로 뿜 풍린 풍경이 펼쳐진다.

죽녹원 내에는 미술관도 있다. '제2의 백남준'으로 불리는 담양



아홉산숲 대숲에서 거닐 줄은 산책을 즐겨보자

다양한 볼거리를 갖춘 죽녹원



아홉산숲에는 굿터 맹종죽이 가득하다.

다양한 볼거리를 갖춘 죽녹원

십리대숲의 핵심인 산책로를 걸어보자. 대나무가 초록빛 터널을 이루는 길에서 발걸음은 경쾌, 머릿속은 상쾌해진다



출신의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이이남아트센터다. 담양의 대나무를 아름다운 영상으로 표현한 작품이 인상적이다. 1층 카페에서는 담양에 가면 꼭 맛봐야 할 주전부리, 댓잎아이스크림을 판다. 당연히 담양에서 생산한 댓잎을 사용한다. 담양산 딸기, 블루베리를 넣은 아이스크림도 있다. 죽녹원 내 한옥 카페 두 곳에서도 댓잎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다. 아이스크림뿐이라. 댓잎차, 죽로차, 댓잎식혜 등 댓잎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인다.

밤에도 아름다운 대숲,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십리대밭

2019년 우리나라 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태화강국가정원에도 근사한 대숲이 있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울산의 젓줄인 태화강을 중심으로 약 83만5000㎡ 면적에 대나무, 생태, 계절, 수생, 참여, 무궁화라는 6개 주제에 따른 여러 세부 정원으로 이뤄진다. 그중 가장 인기 높은 곳은 태화강을 따라 이어지는 십리대밭이다. 이곳에 언제부터 대숲이 있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울산 최초 읍지인 <학성지>에 기록이 남아 있고 일제강점기 때 잦은 홍수 범람을 막기 위해 대나무를 심었다는 이야기도 전하는 만큼 그 뿌리는 깊다.

십리대밭을 즐기는 방법은 다양하다. 먼저 십리대밭의 핵심인 산책로를 걸어보자. 대나무가 초록빛 터널을 이루는 길에서 발걸음은 경쾌, 머릿속은 상쾌해진다. 산책이 지루하지 않도록 곳곳에 대나무로 만든 포토존이나 AR 체험 등 여러 체험 코너도 마련해뒀다. 대나무로 만든 대형 실로폰, 낙서판, 벤치 등 아기자기한 요소가 많다. 밤에만 만날 수 있는 은하수길도 놓치지 말 것. 숲 일원에 LED 조명을 설치해 환상적인 야경을 선사한다. 대나무와 색색의 불빛이 합을 맞춘 은하수길은 낮의 십리대밭과는 온전히 다른 매력을 발산한다. 마지막으로 십리대밭 전경도 눈에 담아보자. 강 건너편의 태화강전망대에서 십리대밭을 시원하게 내다볼 수 있다. 취수탑을 리모델링한 전망대에 오르면 십리대밭과 태화강이 어우러진 절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굿모닝



“계속 글 썼으면 좋겠어요.”

단호하고 따뜻한 한마디였다. 최고의 칭찬이자 응원이었다. 단언컨대 그 한마디가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 칭찬으로 힘을 냈고 응원으로 계속 썼다.

이문재 선생님은 까칠하기로 유명한 분이였다. 나는 몇 해 전 운명처럼 선생님을 만났다. 운명이란 진부한 단어지만 참으로 대체 불가한 단어다. 특히 삶의 중요한 순간에는 더더욱. 그때 나는 너무 지쳐있었다. 힘든 사람에게 예술은 더이상 위로도 치유도 아니었다. 그림을 부러 외면했고 마음을 닫아걸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경희대학교에서 하는 시민 대학 강좌 <나를 위한 글쓰기> 과정을 알게 됐다. 시인이자 교수인 이문재 선생님이 맡고 계셨다. 망설이지 않았다. 왕복 세 시간이 걸리는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나는 지친 맘을 끌고서 기어코 움직였다.

매주 한 편씩 글을 써야 했다. 아득한 과거를 건져 올려야 했고, 현재의 문제를 똑바로 마주 보아야 했으며, 늙어버린 미래의 어느 하루로 다녀와야 했다. 삶의 단편들을 끄집어냈는데 놀랍게도 인생이 통째로 다 달려 나왔다. 부분은 전체와 다름없었고 과거는 현재와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었다. 놀라웠다. 나의 고백들이 나를 에워쌌고, 나의 고통들이 나를 안아줬다. 지친 나는 행간에서 쉬었고, 힘든 나는 쉽표에서 발랄해졌다. **삶을 생각하며 단어를 골랐고, 생은 문장의 결로 흘러갔다. 그러는 새 모든 게 조금씩 괜찮아졌다. 글을 쓰러 다니며 나는 눈에 띄게 밝아졌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무엇일까. 생각을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꿈을 꿈으로 놓아두지 않는 추진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것은 절실함 같다. 마음이 강력하고도 강렬하게 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이다. 일이든 사랑이든 그게 무엇이든. 그때 **지친 내가 피곤을 핑계로 발을 떼지 않았더라면, 게으른 내가 나태로 무거워진 몸을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을 것이다.** 여전히 모든 일에 푸파거리며 징징거리며 생의 꿈무늬를 쫓아다니고 있을 테지.

하지만 나는 선생님의 한 마디를 꼭 붙잡았다. 계속 써보라는 응원. 잘 할 수 있다는 격려. 그리고 정말 계속 썼고 지난해 책을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갤러리의 일은 고되다. 물론 무슨 일이든 다 그렇긴 하다. 예술이라는 아름답고 좋은 것을 다루는 일인데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커서 단순한 내가 곱절로 어려워 했다. 점점 예술은 피하고 싶은 현실이 됐고 나는 맞닥뜨리기보다 도망 다닌 것 같다. 그런데 글을 쓰며 나를 마주 보았고 현실을 바로 보게 됐다. 거기서 시작되었다. 의미 있는 성장도, 변화도, 도약도. 나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하자 기회도 스르륵 찾아왔다. 햇살 좋은 날 출판사의 전화. "출판 계약하시지요!"

떼었던 그림을 다시 걸었다. 예술 속에서 다시 힘이 펄펄 났다. 매일 아침 김경민 작가의 <굿모닝>을 들여다본다. 6월의 햇살 속으로 그는 막 나아가고 있다. 그의 얼굴은 초여름의 신록인 양 생기롭다. 그의 미소는 초여름의 바람인 양 흐뭇하다. 그의 발걸음은 푸르고 빠른 강처럼 힘차다. 그의 앞날은 6월의 나무처럼 푸르다.

김경민 작가는 조각가다. 거리 곳곳에서 그녀의 대형 조각 작품을 볼 수 있는데 하나같이 밝고 건강하고 힘차다. <굿모닝>을 보면서 마음을 깨운다. 생기를 불어넣고 활기를 회복한다. 뚜벅뚜벅 세상으로 걸어 나갈 힘을 얻는다.

예술이 토닥토닥 등 두드려 주는 6월의 굿모닝. 가리앉은 마음을 끌어올린 것도, 손을 내밀어 준 것도 예술이었다. 세상 무용해 보이는 그림 한 점, 가치라곤 없어 보이는 글 한 줄이 사람을 위로해주고 살아가게 한다. 예술의 가치와 사람의 힘을 알게 된 나는 부단히 보고 쓴다. 그리고 부추기기를 멈추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절실해도 누군가의 한마디는 생의 마중물이 되는 까닭이다. 그 한마디로 우주를 들어 올릴 추진력을 얻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 옆구리 꼭꼭 짚어야 한다. 꿈을 꾸라고, 그리고 꿈으로 그냥 내버려두지 말라고, 우리 꿈 쪽으로 기필코 움직여 생의 강렬한 추진자가 되어보자고.

사회적 자존감과 웰빙 코로나 19로 깨달은 우리의 정체성

플라톤의 국가(Politeia)를 읽어보면, 제1권에 '올바름' 즉 정의(正義)란 무엇인가에 대해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 간의 논쟁이 등장한다. 언제나 자신이 무지자(無知者)임을 자처하는 소크라테스와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이 일가견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트라시마코스 간의 논쟁인지를, 심리학을 하는 필자에게는 특별히 더 묘한 관전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장면이다. 트라시마코스는 정권을 장악한 자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걸 법으로 정하여 약자들인 피지배자들에게 이행하도록 하므로 올바름이란 '더 강한 자를 위한 편익'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맞서 소크라테스는 올바름이 '편익이 되는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나, 그것이 강자의 편익일 수는 없다는 반론을 편다. 의술(醫術)

이나 구두 제작 기술(技術)처럼 어떤 기술이나 다스림도 그것을 지닌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의 혜택을 입을 약자를 위한 것이듯, 치술(治術)도 그 자체는 약자인 피지배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말이다. 이에 트라시마코스는 실제 현실에서는 올바르지 못함이 이득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잘살고 있다며 반박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잘 사는 것'이란 '훌륭하게 사는 것'이겠는데, 올바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반면에, 올바르게 못하게 사는 것은 '잘못 사는 것'임을 '사람의 훌륭한 상태(arete), 즉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와 관련지어 주장을 편다. 이로부터 시작된 '잘 사는 사람' 즉, 어떤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훌륭한 상태의 사



우리는 세계 그 어떤 나라들보다 제 역할을 하는 리더들이 있는 나라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과 자존감을 느끼게 되기를 기대한다.



람'인지를 두고 트라시마코스를 비롯한 소피스트들과 소크라테스 간의 대화가 시작되는데, 이때 소크라테스 특유의 산파술에 따른 논리 전개가 오늘날 행복을 탐구하는 긍정심리학의 교본으로 삼아도 될 만큼 훌륭하다. 소크라테스는 좋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일 것은 자명하므로 어떤 나라가 훌륭한 상태의 잘 사는 나라(오늘날의 언어로는 '웰빙 국가')인지를 먼저 설명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나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이다. 지금 코로나 19로 인한 범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의 여러 나라를 보면, 플라톤의 국가론 속에서 소크라테스의 입을 통해 정의된 '잘 사는 나라', 즉 웰빙 국가가 과연 어떤 국가인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모르고, 약자와 강자도 모르며, 정의를 알지 못한다. 취약한 계층의 사람일수록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에 대처해야 하는 우리 인간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뛰어난 자들을 전문가로 키워낼 수 있고, 현(現) 인류에게 가장 적합한 정치체제 안에서 개인의 생각과 자유로운 판단으로 리더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가능태일 뿐 모든 나라가 훌륭한 전문가와 리더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닌 듯 보인다. 요즘과 같은 범국가적인 비상상태에는 그 어느 때보다 훌륭한 전문가와 리더가 필요한데, 불행하게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모두가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과연 이러한 체제와 리더를 갖춘 나라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386세대로 대표되는 현재 우리나라의 중장년 세대들은 더 나은 국가를 만들고픈 열망이 강했다. 어찌 보면 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슬픔과 애달픔, 그리고 같은 세대면 공감하는 모종의 한(恨)이 있다.

피 끓던 마음으로 투쟁했던 그 청년들이 이제 50대, 60대가 되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된 지금, 가슴 뛰는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어느덧 우리나라가 그동안 우리 스스로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것만큼 강자의 편익을 위해 약자들이 이용되는 '정의롭지 못한 나라'가 아니라는 자기 발견 때문일 것이다. 세계 그 어떤 나라들보다 제 역할을 하는 리더들이 있는, 몇 안 되는 제대로 된 나라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의 젊은 세대들과 동량들은 우리의 젊은 시절과는 달리, 새로운 사회적 정체감과 자존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것은 비단 정치체제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문민정부 시대로 접어든 90년대 이후 공교롭게도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씨랜드와 대구 지하철 화재, 세월호 침몰 사건까지 대규모 인재사건들이 잇을 만하면 한 번씩 일어났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모두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주저앉아 울고만 있지 않았다. 정치적 이슈로 투쟁하던 그 열정으로 백성(民)이 주인(主人)이 되는 나라를 위해 조용히 투쟁해왔다. 아마도 아픔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지한 반성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것 같다. 뜻밖에도 전 세계가 모두 같은 시련을 겪는 와중에, 이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고유의 자질과 그동안 갈고 닦아온 능력을 바탕으로 극복해 가는 과정을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못 뿌듯하기까지 하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부러움과 시샘이 뒤섞인 경탄 어린 시선은 차치하고라도,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국민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제대로 돌아가는 사회인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웰빙 국가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수많은 고통과 시련으로부터 배운 결과이기에, 참으로 값지다.

우리 동네에 교정시설이 들어올때!



사회초년생의 뚝뚝한 돈관리를 도와주세요

교정공무원의 고민상담소

교정공무원으로 살면서 느낀 어려움, 스트레스가 있다면 익명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사소한 고민이라도 월간 <교정>이 해결에 보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시면 따뜻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고민
사연



꿈꾸던 공무원 시험에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축하도 많이 받았고 저 스스로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맡고 회사

생활을 시작해보니 다른 것보다 월급이 적어서 아쉬움이 생깁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나아지겠지만 지금 당장 생활과 저축을 하는데 빠듯하네요. 학자금 대출과 월세처럼 피치 못할 고정적인 지출이 있기도 하고요. 한정된 금액이지만 뚝뚝하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공부나 문화생활, 운동으로 저를 위한 투자도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모든 게 지출이네요. 어떤 것에 우선 순위를 두면 좋을지 헛갈립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저축도 하고 알뜰하게 생활도 할 수 있을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From. 영앤리치



안녕하세요, '영앤리치' 님. 반갑습니다.

학자금 대출과 월세 등, 피할 수 없는 고정지출이 주는 피로감은 상당합니다. 월급 받아봤자 이것저것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생각에 자포자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영앤리치 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네요. 마음이 단단한 멋진 분이십니다. 세상은 여러모로 참 불공평하지만, 시간만큼은 칼같이 공평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최대한 이용해야겠죠. 저축하다 보면 에휴, 겨우 요거 모아서 뭐 할까 싶지만, 시간이 지난 후엔 요만큼 같던 것이 이만큼으로 적립되어 있을 겁니다.

영앤리치 님은 구체적인 저축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단기 목표를 만드는 걸 추천합니다. 한 달 치 급여만큼의 여윌돈을 만드는 걸 1차 목표로 하고, 달성한 다음엔 거기서부터 다시 석달 치를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반년 치, 일 년 치로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일 년 연봉이라니, 너무 꿈같은 이야기 같고 막막하지만 1차, 2차, 3차 목표를 정해 하나씩 달성하다 보면 어느새 도달하게 됩니다.

용도에 따른 작은 적금을 여러 개 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4, 5년 주기로 노트북을 새로 사는데, 그때마다 갑자기 큰돈을 쓰려면 숨이 턱 막히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딱 천 원짜리 적금을 1년간 꼬박 넣으면 이자를 제외하고 365,000원이거든요. 4년이면 1,460,000원입니다. 가뿐하게 새 노트북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납부 주기와 금액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을 활용해 보세요. 저에겐 새 휴대폰을 위한 적금과 자동차 보험료 납부용 적금 등도 있습니다. 각각 매월 이, 삼천 원씩 적립합니다.

현재 은행의 예·적금 상품 이자율은 매우 낮고, 그래서 리스크가 큰 다른 투자상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자에 크게 연연할 때가 아닙니다. 애초에 이자 소득을 피할 만큼 큰돈을 갖고 계신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 일단은 충실하게, 성실하게 가야 합니다. 국영수를 중심으로 학교 수업에 충실하면 좋은 성적을 받는다면, 건강한 식생활과 꾸준한 운동을 병행하면 몸이 좋아진다는 것 같이 너무 편한 이야기지만 실은 세상에서 제일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쉬운 길이 없나 하고 옆을 보게 되고, 무슨 무슨 투자가 요즘 뜬다



는 소리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일단은 시간을 들여 멧집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되었든 할 수 있어요.

또한 저는 가계부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명세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편리한 스마트폰 앱이 많습니다. 꼼꼼히 기록해 수입과 지출 통계를 만들어 보세요. 식비는 수입의 몇 퍼센트이며 식비 중 커피값, 식자재 구매비, 외식비, 술값 등의 비중은 어떤지 체크합니다. 주거 비용, 쇼핑 비용, 차량 유지 비용 등도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 기록하는 습관을 만듭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 슬슬 나만의 소비 패턴이 보입니다. 그게 더 쌓이면 나만의 빅데이터가 되는 것이고요. 명절, 결혼식이 많은 달, 휴가비 지출이 있는 달 등 유난히 돈이 많이 나가는 일에도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내 주머니를 내가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내 가정경제를 내 손 안에 두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시야는 거기서부터 차츰 넓어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5년 후, 10년 후 영앤리치 님의 경제 상황은 어떨지 저는 벌써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파이팅!

<참여 방법>



어떤 사연이든 누군가와 상담하고 싶은 고민이 있다면 익명으로 신청해주세요. 신청은 이메일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또는 QR코드 응모 페이지로 받습니다. 이름과 개인 정보는 기재하지 말고 고민만 작성해 보내주세요.

간단하게 만들어 먹기 쉬운 주먹밥

재료



밥 1공기, 잔멸치 3큰술, 오이 1/4개,
고추 1개, 참기름 1작은술, 오일·통깨·소금 약간씩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준비한 도시락과 자유롭게 소풍갈
날을 기다리며, 만들기 쉽고 먹기도 간편한 주먹밥 두 가지를
소개한다. 몇 가지 재료만 준비해서 조물조물 뭉쳐 만들면
완성이므로 누구나 간편하게 시도해볼 수 있다.

조리 순서

- 1 고추는 곱게 다지고, 오이는 얇게 링 모양으로 썰어 소금에 절인 후 물기를 제거한다.
- 2 오일을 두른 팬에 잔멸치를 약불에서 볶는다.
- 3 다진 고추와 절인 오이를 넣고 볶다가 참기름으로 마무리한다.
- 4 따뜻한 밥에 멸치오이볶음을 넣어 버무린다.
- 5 소금, 통깨, 참기름으로 간해 동그랗게 만든다.

재료



현미밥 3큰술, 김·치즈 1장씩, 달걀 2개,
송송 썬 김치 1/3컵, 설탕 1/2작은술,
오일·소금·후추 약간씩

조리 순서

- 1 달걀을 곱게 푼 후 밥을 넣고 소금, 후추로 간해 달걀물밥을 만든다.
- 2 치즈를 1cm 폭으로 자른다.
- 3 오일을 두른 팬에 김치와 설탕을 넣고 볶는다.
- 4 오일을 두른 팬에 달걀물밥을 넣은 후 70% 정도 익으면 볶은 김치, 치즈를 올려 돌돌 만든다.
- 5 한소끔 식으면 김 위에 올려 돌돌 말아 한입 크기로 자른다.

*김밥에 넣어 모양을 고정해도 좋다.

멸치 오이 주먹밥



달걀 치즈 주먹밥



“죽느냐 사느냐

<1917> Vs. <라이언 일병 구하기>

전장에서 '생존'이라는 것은 원인이자 목적이고, 명분이자 가치이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가 맞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 두 편의 주인공은 피칠갑 격전지를 기필코 기어 들어가야 하는 운명의 소유자다. 발길을 멈추면 죽을 것이고, 발길을 이어가도 죽을 것이다. 오늘은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추진력, 즉 가치와 목적에 대한 이야기다. 스포일러 주의!

<1917>

내일이 밝으면 아군 1,600명이 적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집중포화를 당해 죽을 것이다. 스코필드 일병은 통신이 두절된 데본셔 연대에 공격 중지 명령을 전하러 떠난다. 지도를 볼 줄 알고, 그곳에 친 형을 둔 블레이크와 함께.

장르: 전쟁, 드라마 시간: 119분 감독: 샘 멘데스 출연: 조지 맥케이, 딘-찰스 채프먼, 콜린 퍼스



포기를 모르는 최고의 추진력 장면



#1 철선을 건드리면 터지는 부비트랩을 피해 죽을 고비를 넘길 뻔 했으나, 큰 쥐가 미필적 고의로 철선을 건드려서 참호에 깔려 기절한다.



#2 격전지로 향하던 중 매복해 있던 독일군이 쓴 총에 비껴 맞으며 기절한다.



#3 독일군에 쫓기다가 죽히 100미터는 돼 보이는 강에 뛰어든고 강둑에 쌓인 시체 더미들 사이에서 정신을 차린다.

격전지 한복판을 가로질러 공격 중지 명령을 전하는 임무를 받은 스코필드. 인생은 종종 결정권을 행사할 틈 없이 운명처럼 흘러가곤 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도 그는 군인이므로 홀로 도망칠 수 없다. 19살의 어린 블레이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임무를 진행하며 조금씩 희망이 보일 즈음 적군의 칼에 찔려 블레이크가 목숨을 잃는다. 지도를 볼 줄 아는 블레이크의 죽음은 부대로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줬지만, 스코필드는 전진을 택한다. 그가 남긴 흐릿한 가족사진과 군번 줄, 유언을 안고 비장한 마음으로 그의 형이 있는 데본셔 연대로 전진한다. 1,600명의 목숨과 죽은 동료의 유언,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사명이 물 먹은 거울 빨래처럼 그의 어깨를 짓누른다. 죽음을 불사한 12시간의 무모했던 여정은 공격 중지 전령을 잘 전달하며 마무리된다. 블레이크의 형에게 다정했던 동료가 슬프지 않게 떠났다는 유언을 전함과 함께, 생존에 대한 희망을 잃고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스코필드는 임무를 마친 후 조용히 부인의 사진을 꺼내어 본다. 이 장면을 통해 삶과 가족, 소중한 존재에 대한 사랑(어쩌면 연민)이 그 위대한 여정의 동기가 추진력이었음을 우리는 마침내 깨달을 수 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임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육군 대위 밀러는 어느 부모의 징병된 네 명의 아들 중 세 명이 전사하자 살아있는 막내 아들 '라이언'을 반드시 구출하라는 상부 명령을 받고 팀을 꾸려 '죽음의 땅' 노르망디로 향한다.

장르: 전쟁, 드라마 시간: 170분 감독: 스티븐 스피버그 출연: 톰 헙크스, 맷 데이먼



라이언을 찾아가던 중, 존 밀러가 이끄는 소대에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위기감이 고조된다. 죽음의 공포를 실감한 레이번이 울분을 토해낸다. 자살 임무나 다름없는 이 짓을 못하겠으니 차라리 죽이라며 소리 친다. 존 밀러는 먼 발치에 있다. 총구가 소대원 간 이마로 향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조용하다. 레이번의 흥분이 극에 달할 즈음 존 밀러의 나지막한 혼잣말이 전장의 찬 공기에 스며든다. "라이언... 난 라이언이 누군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나한테 의미 없는 사람이야. 단지 이름만 존재할 뿐이지. 하지만 그를 찾아야만 내가 아내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그건 내 임무고, 우리의 임무야." 군법에서 엄격히 적용하는 하극상에 단호히 대처하지 않고, 팀원의 감정을 섬세하게 다룬 그의 완숙한 소통 능력은 8명의 팀원을 이끌고 격전지에서 라이언을 찾아야 하는 임무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그의 추진력은 생존에 대한 갈망이고, 그 수단엔 소통 능력에 있다. 존 밀러는 전쟁터 시체를 모아 만든 사이보그라는 말을 들을 만큼 차가운 인상이지만, 꼭 필요한 상황에서 팀원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소통으로 분위기 쇄신에 성공한다. 참고로 존 밀러는 11년간 학교에서 영작문을 가르친 교사 출신이다.

포기를 모르는 최고의 추진력 장면



#1 영화 초반의 오마하 해변 상륙 작전. 12만 명이 전사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 작전으로 이 노르망디 작전에서 존 밀러는 살아남는다.



#2 전쟁에 대한 공포와 후유증으로 인해 긴장하면 손을 바들바들 떨지만, 팀원에게 감추며 리드해서 강인한 이미지를 유지한다.



#3 갖은 고생 끝에 라이언을 찾아내지만, 적들에게 포위당한 부대원들을 위해 끝까지 남겠다는 라이언의 의견에 동조해 같이 싸운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로다”

소유하지 않는다, — 경험한다

스트리밍 라이프
Streaming Life

매년 주목할 만한 트렌드를 발굴해 소개하는 책 <트렌드코리아2020>이 새로운 트렌드 키워드로 제시한 '스트리밍 라이프(Streaming Life)'라는 말이 있다. '구매'는 반드시 '소유'를 의미했던 과거에서 나아가 비용은 지불하되 '경험'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문화가 확산되며 등장한 개념이다.



변화하는 트렌드, 소비 패턴을 바꾸다

스트리밍(Streaming)은 '흐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스트리밍 서비스는 음악이나 동영상 파일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다운받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일을 뜻한다. 음악을 스트리밍 할 수 있는 멜론, 애플뮤직, 영화나 드라마를 스트리밍할 수 있는 넷플릭스, 왓챠플레이, 웨이브 등이 대표적이다. 스마트폰을 비롯해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가 있으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볼 수도 있다.

해당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소유'한다는 선택지는 여기에 없다. 인터넷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필요할 때 즉시 소비할 수 있으니 용량 걱정도 없다. 수시로 새로운 콘텐츠가 탄생하는 현재, 낯선 것을 제대로 경험할 시간도 부족하다.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것이 음악이나 영상일 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는 한계를 모르고 확대되어가는 중이다. '스트리밍'은 더 이상 콘텐츠에서만 쓰이는 말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스트리밍 라이프'의 의미다. '소유하지 않고 경험한다.'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저서 <소유의 종말>에서 "소유의 반대말은 무소유가 아니다. '접속'이다"라며

변화할 소비 트렌드를 내다본 바 있다.

이와 맥을 같이 하면서 발달한 것이 '구독' 서비스다. 어떤 제품에 대해 결제하면 그것이 정기적으로 내 집 앞으로 배송되는 서비스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꽃, 책, 술, 양말, 영양제, 세계 과자, 침대 매트리스. 이중 정기 구독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어느 것일까? 답은 '모두'다. 앞서 나열한 품목 모두 정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존재한다.

이 밖에도 주거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홈케어 서비스나 차량처럼 예전에는 정기적인 구매를 상상하기 어려웠던 업계에서 구독 서비스를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다. 스트리밍 라이프는 정기 렌탈을 비롯해 이와 유사한 모든 서비스를 포괄한다. 삶에 필요한 모든 요소에서 스트리밍이 가능해졌기에 탄생한 말이다. 요즘 사람들은 소유에서 느끼는 기쁨을 넘어 경험을 하고 그 내용을 SNS에 공유하며 취향을 공유하는 데서 더 큰 만족을 느낀다. 소유를 고집할 필요가 없는 이유다.

축적된 데이터로 최적의 상품을 제공

이런 서비스의 특징은 단순히 새 제품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취향을 파악한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품

소비자들은 나에게 특화된 무언가를 원하기 마련이다. 전문가의 큐레이션을 바탕으로 한 정기 구독 서비스가 눈길을 끄는 이유도 그래서다.

목을 소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가 스트리밍하는 콘텐츠가 곧 나의 취향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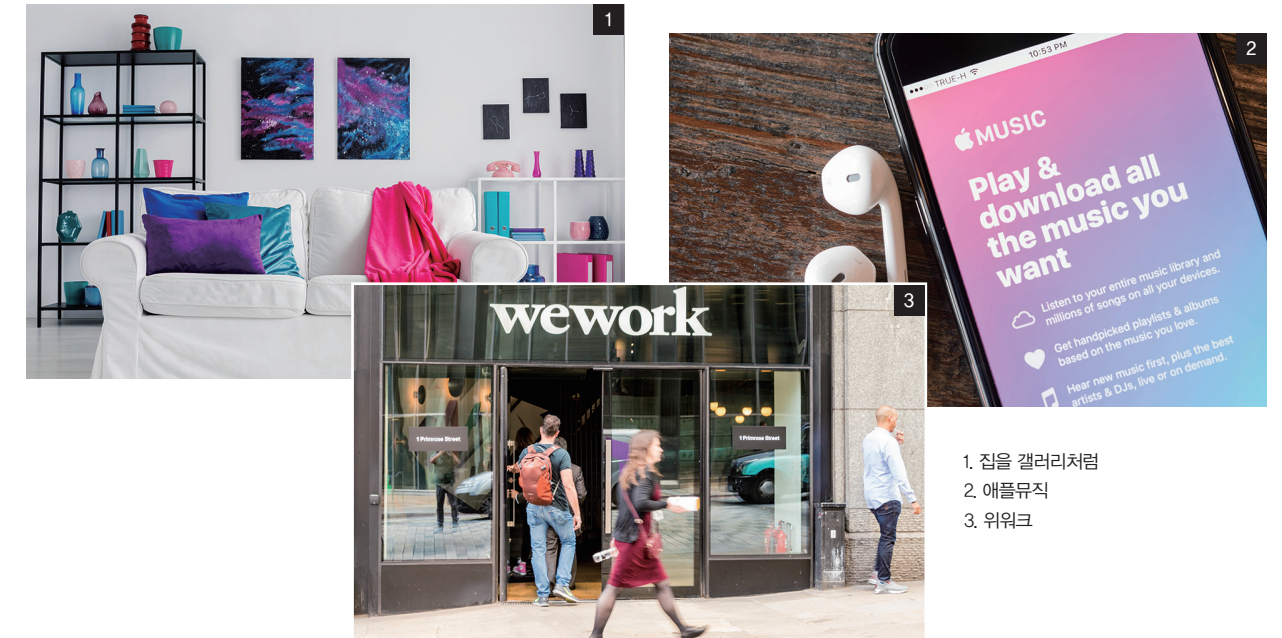
소비자들은 나에게 특화된 무언가를 원하기 마련이다. 전문가의 큐레이션을 바탕으로 한 정기 구독 서비스가 눈길을 끄는 이유도 그래서다. 낯선 분야에서 처음부터 취향을 갖기는 어려운 법이므로 전문가의 추천 상품으로 취향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퍼플독, 술담화가 대표적이다. 각각 와인과 전통주 추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와인과 전통주 모두 종류가 많고 즐기는 방법, 잘 어울리는 음식 등이 무궁무진하므로 입문하기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지만 매회 술에 얽힌 콘텐츠도 함께 즐길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주류 업계의 스트리밍 라이프는 이런 방식으로도 즐길 수 있다. 미국의 한 스타트업은 매달 9.99달러를 내면 맨해튼의 술집에서 매일 카테일을 한 잔씩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한국에서도 데일리샷이라는 기업이 비슷한 상품을 운영 중이다. 매달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제휴 술집에서 매일 술 한 잔을 무료로 마실 수 있다.

오픈갤러리, 핀즐은 그림을 렌탈하거나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집안 허전한 벽면을 그림으로 채우고 감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지만 한 가지 작품만 평생 걸어둘 수도 없고 수시로 작품을 바꾸기엔 많은 비용이 든다. 그림 렌탈이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면, 몇 개월 마다 주목할 만한 작가의 작품을 소개받고 원화를 렌탈하거나 구매할 수도 있다.

볼보자동차는 2017년에 독특한 광고를 선보였다. “이 차를 사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광고 메시지는 즉시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기에 성공했다. 이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다양한 차종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새로운 서비스의 홍보 문구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있다. 현대자동차는



1. 집을 갤러리처럼
2. 애플뮤직
3. 위워크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경험을 해보았는지가 바로 그것이다.

2019년부터 구독 서비스를 시작해 ‘현대 셀렉션’을 운영 중이다. 여러 차종을 확보하고 있고 최근에는 서비스 지역을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월 단위로 구독과 해지가 가능하고 카셰어링이나 단기 렌터카 이용 금액에 경쟁력이 있다고 소개한다.

한계가 없는 서비스의 다양함

사무실이나 거주 공간 역시 스트리밍 라이프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공용 공간을 넓히고 개인 공간은 최소화하는 공유 주택이나 공유 오피스는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공유 오피스 위워크는 우리나라와 정 반대편에 위치한 나

라에서도 위워크 멤버라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세계 어느 곳에 있더라도 위워크를 내 오피스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사무실이든 집이든, 내 소유가 되면 유지와 관리에 비용이 든다. 스트리밍 라이프는 이런 데 필요한 지출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미국에서 스트리밍 형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수가 2017년을 기준으로 1,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전체 전자상거래 중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현재 그 규모는 훨씬 더 상승했을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인생의 풍요로움을 평가하는 척도 또한 달라졌다.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경험을 해보았는지가 바로 그것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스트리밍 라이프. 갖고 싶은 욕망과 현실 사이를 타협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이 트렌드는 앞으로 또 어떻게 진화하게 될지 궁금해진다.



뒷전 인생

앞서지 못했다. 그렇게 뒷전 인생을 살고 있다는 뜻일 게다. 그럼에도 나는 그런 나를 자극히 사랑하고 있다. 자기주장 혹은 자기 합리화인지도 모르겠다. 앞서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무슨 긍지와 보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만, 이러구러 스스로 내 삶의 방식에 의미를 두면 곧 뜻있는 인생이 아니겠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일등에 대한 기억은 아련한 추억이 되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시절 가을 대운동회 때였다. 어머니는 할머니를 모시고 읍에 있는 학교까지 걸어 어린 아들의 운동회를 구경하러 오셨다. 기억하건대 김밥이나 맛있는 먹거리도 없었다. 그나마 햇고구마와 이른 옥수수를 찢 게 별미였다. 이윽고 어머니의 관심은 여섯 명씩 함께 내달리는 경기였다. 멀리서도 어머니는 용케 나를 알아보았다. 어김없이 일등을 했으니까.

또 있다. 유격 훈련을 받을 때다. 비교적 생활이 편한 남쪽 후방 부대에서의 군 생활은 나에겐 큰 혜택이었다. 그래서였을까. 군기가 엄성한 부대원들에게 지휘관은 유격 훈련만큼은 예외 없이 일 년에 한 번씩 엄격하게 받도록 명령했다. 일주일 동안 생지옥 체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유격 훈련 과정을 엄중히 심사하여 낙제점수를 받게 되면 다시 일주일을 더 받게 했으니 몸과 마음이 사뭇 긴장하여 지독한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 훈련에서 일등이라는 쾌감을 누렸다. 어찌 보면 너무 비인간적인 선착순 훈련이었다. 극한 코스 훈련을 앞두고 긴장감을 극복하도록 사전에 숨 가쁜 피티 체조와 봉체조를 마쳐갈 즈음 빨간 모자를 쓴 조교는 느닷없이 호루라기를 불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산 중턱까지 달려갔다가 돌아오는 선착순 게임이었다. 일, 이, 삼 등은 나머지 훈련을 면제받는 특별한 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 낱새를 헤아리고 있어서 이번만은 기필코 일등 하리라 마음먹고 있었다. 결국 일등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리고 말았다. 그 통쾌함이라니.

공부에서 일등을 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 길은 멀었다.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는 고작해야 한 학년에 육십 명도 채 되지 않았다. 그 가운데 일등은 내 몫이 아니었다. 단지 손을 꼽는 몇 명 축에 들긴

오래 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하루하루 나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절망을 넘어 꿈을 꾸게 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보람인가.

했다.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도 그리 뛰어날 리 만무했다. 수학 과목이 없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것은 크나큰 성취였다. 한 가지 더 자랑스럽게 생각나는 것은 정서가 메마르지 않도록 전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한 교정문예 현상공모에서 시와 수필로 두 차례나 최우수상을 받은 것이다. 뿌듯했다. 시 한 편을 투고하기까지 무려 몇 달을 씨름했던 산고의 열매였다.

그렇지만 정작 직장 생활에서 승진이나 근무 평정에서는 뒤쳐졌다. 조직적인 시스템에 지혜롭게 적응하지 못한 게 분명하지만 스스로 생각건대 내 양심과 소심한 인성 탓이 컸다. 이런 나와는 다르게 동생들은 출중했다. 둘째 아우는 스물네 살에 중등교사가 되어 서른아홉에 장학사로 승진하였고 마흔일곱에 교장 자리에 앉았다. 타고난 성실함과 부지런함의 결실이었다. 수의사라는 전문 직업을 가진 셋째 아우도 겸손한 성품과 신실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천 명이나 되는 조합의 조합장으로 신임을 얻고 있다. 법대를 나온 막내아우 또한 승승장구하여 굴지의 보험사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 자랑스럽기만 하다.

생각할수록 감사하다. 나도 이렇게 정년을 넘기고도 일하고 있다. 오래 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하루하루 나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절망을 넘어 꿈을 꾸게 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보람인가. 교도관이라는 직업은 그래서 가치 있는 아름다운 직업이다. 큰 소리 안 내기, 미워도 다시 한번, 친절하게 응대하기, 친절을 넘어 칭찬해주기, 진심으로 건강을 염려해주기, 또 먼저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격려해주기 등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내 안에 빛이신 그분을 전하고 싶다. 정작 이런 일에 일등이 되고 싶은 거다. 이 직업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아름다운 마무리로 내 속사람이 흐뭇하게 웃을 수 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그게 앞서가는 인생이 아닐까.



엄마의 고깃배



'희망의 백일장'은 수용자들이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출소 후 뒤편하고 희망적인 삶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참회와 교화의 시간을 거쳐 사회로 돌아갈 수용자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어느덧 내 나이 39세,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다.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오빠, 나 이렇게 네 식구였다. 그러나 행복했던 기억은 까마득하다. 나는 늘 불행했다고 생각한다. 부모님은 어업을 하셨다. 새벽 3시가 되면 조업을 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셨다.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는 늘 하시는 일이 있었다. 파르릉 시계를 7시에 맞춰 두고 시계 밑에 용돈을 놓아두고 새벽바람을 맞으며 조업을 나가신다. 조업에는 엄마도 늘 함께 가셨다. 남자의 몸으로도 힘든 뱃일이었지만 엄마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배를 타셨다. 난 그 어린 나이에도 학교를 마치면 바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고된 뱃일을 마치고 지쳐 돌아오는 부모님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겨움을 덜어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빠는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를 때렸다. 이유도 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 엄마는 아빠의 장난감 같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모질게 맞은 사람이 있을까 싶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은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에 돌아와서 본 광경이다. 엄마는 두들겨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였고 집안 살림살이도 다 박살이 나서 난장판이었다. 그런 엄마가 너무 불쌍했다. 그래서 엄마가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조금이나마 엄마의 일을 덜어주고 싶었다. 어린 마음에도 엄마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연탄불부터 확인했다. 추운 바닷가에서 고생한 부모님이 집에 돌아와서도 차디찬 바닥의 냉기에 떨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연탄불을 꺼트리지는 않는 것이 나에게서는 무척 중요한 일과였다. 매일매일 냄비에 밥을 해서 이불 밑에 넣어 두었다. 그리고 나면 화장실 한구석에 쪼그



늘 떠올리는 유일한 순간이 있다.
행복했던 만선의 기억 속에서 엄마는
항상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손을 흔들고 있다.

려 앉아서 빨래를 했다. 따뜻한 물 한바가지를 옆에 두고 손이 시릴 때마다 손을 녹였다. 그렇게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손빨래를 마치고 날 때쯤이면 부모님이 바다에서 돌아오셨다. 아빠는 저녁마다 거하게 취하셔서 엄마를 괴롭혔다. 이런 집이 싫어서 오빠는 일찍 집을 나가서 속칭 깡패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나에게 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언제나 이런 일이 일상이었다. 언제쯤 이면 이 불행들이 멈출까 생각해 보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난 집안일을 다하고 나서 집 밑에 있는 바닷가 등대에서 부모님을 기다렸다. 아빠는 조타실에서 운전을 하였고 엄마는 뱃등 위에 계셨다. 꽤 먼 거리였지만 엄마아빠가 탄 배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엄마가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갑판 위에 나와 계신다는 것은 만선이라는 뜻이다. 난 멀리서 손을 흔들었다. 그러면 엄마도 손을 흔들었고 아빠는 가끔 뱃고동을 울려줬다. 무사히 돌아온 부모님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놓였다. 만선인 채로 돌아오는 날에는 잠깐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조금씩 이상해졌다. 엄마가 매일매일 아빠한테 폭행을 당하고도 힘든 일을 이겨 낼 수 있었던 것은 술기운 때문이었다. 엄마는 소주를 숨겨두었다가 매일매일 안주도 없이 몰래 마셨다.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 늘 고생만 하다가 마흔다섯이라는 젊디젊은 나이에 눈을 감으셨다. 엄마를 잃은 나는 오랫동안 아빠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런데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나 보다. 원망스럽기만 했던 아빠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다. 오히려 내가 너무 어린 나머지 엄마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자책감만 커졌다.

엄마는 늘 이미지의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를 즐겨 부르셨다. 이제는 나도 힘이 들 때면 그 노래를 자주 부르고 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늘 떠올리는 유일한 순간이 있다. 행복했던 만선의 기억 속에서 엄마는 항상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손을 흔들고 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행복했던 순간.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엄마는 내 곁에 안계셨다. 나의 지난날들을 돌아보면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컸다. 내 나이 스무 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벌써 20년이나 지났다. 어느덧 4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종종 아이처럼 '엄마'라고 소리내어 불러보곤 한다. 엄마, 엄마 불러도 이제는 대답이 없으시다. 엄마한테 잘 했던 기억은 없는 것 같고 잘 못했던 일들만 기억난다. 엄마는 행복하실까.

4월의 꽃망울들이 터질 때쯤이면 엄마의 기일이다. 엄마는 봄나들이를 하듯 멀리 떠나셨나 보다. 내 기억 속에서 엄마는 어느 꽃들보다도 곱고 예뻐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지금은 한순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영어의 몸이 되어있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뉘우친다. 이곳에서 나가면 엄마의 딸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해본다.

엄마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 그래도 부르고 싶다.

엄마,
그립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 교정을 위한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언론브리핑

지난 5월 21일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언론 브리핑이 있었다. 국내유수의 언론사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현행 교정정보시스템을 개선해 교정본부가 지향해 나아가고 있는 스마트 교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2022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교정본부가 오는 2022년까지 최신 정보통신기술(CT)을 적용한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1일 국내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에 관한 브리핑이 있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차세대 통합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수용정보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지능형 계호 시스템 구축' 등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는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가 발표됐다.

발표를 위해 우희경 법무부 교정기획과장이 연단에 서자, 브리핑에 참석한 JTBC, YTN 등 국내언론사 카메라와 기자들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됐다. 우희경 과장은 현장에 있는 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교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교정정보시스템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관리를 위해 수용자의 입소부터 출소까지의 중요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사용 중인 교정정보시스템은 지난 2003년 수용자 신분카드 전산화를 위하여 처음 구축되었으며, 2006년 녹음녹화접견관리 시스템, 2010년 수용자의료정보 시스템, 2013년 인터넷화상접견 시스템 등이 순차적으로 도입되며 완성되었다. 그동안 꾸준히 부분적인 개선을 해왔으나, 구축된 지 17년이 경과됨에 따라 시스템이 노후화되고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 불편함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정부정책기조에 맞춰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재구축되면 이를 바탕으로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정시설을 구축하여 수용자 개별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소통을 위한 스마트 교정

먼저, 지난 3월 착수한 '1단계 차세대 통합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현재 일반접견, 화상접견, 스마트접견으로 구분해 운영 중인 접



건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태블릿 기기를 이용한 스마트 접견을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화상접견 및 스마트접견이 최근 5년간 47%이상 증가하는 등 교정시설 방문 없이 이루어지는 접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설치된 태블릿 기기의 수와 데이터 저장용량 등의 한계로 스마트접견은 한 해 약 15만 건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기준 교정시설 접견 인원인은 395만여 명으로 접견인원에 비해 스마트접견의 비율은 턱없이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법무부는 향후 각 접견실에 모든 형태의 접견이 가능한 태블릿 단말기를 설치하고 데이터 용량을 증설하여 통합접견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접견 시스템을 단일화·표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접견실, 데이터 용량 부족 등으로 제한되었던 스마트접견 기회가 대폭 확대돼 연간 최대 100만 건 이상의 스마트접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비접촉 접견이 활성화 되면 원거리 방문객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인원인의 교통비용 534억 원, 이통에 필요한 478만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스마트접견 활성화로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비대면 업무시스템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용자 이송기관 배정업무도 자동화된다. 현재 수용자 이송업무는 도주우려, 재범 가능성, 교정기관의 적정수용률 등 전반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업무담당자가 수기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이송업무가 지연되거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차세대 지능형 교

통합접견플랫폼 구축으로 접견 시스템이 단일화·표준화되면 연간 최대 100만 건 이상의 스마트접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이송대상자가 시스템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 자동 배정됨으로써 이송업무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교도작업 전산시스템을 통해 각 교정기관에서 수용자가 생산한 교도작업 제품의 생산 및 재고 현황을 전국 교정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주문·배송 상황을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정보시스템 통합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재범 고위험군 수용자에 대한 전문 분류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류센터에서 별도로 개발하여 운용 중인 자료 시스템을 교정정보시스템에 통합하고, 무인 민원단말기 키오스크와 교정민원 안내를 위한 챗봇을 도입하여 민원 서비스를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 교정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단계별 사업 추진

2021년 5월 1단계 사업이 완료된 후 진행될 '2단계 수용정보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과 '3단계 지능형 계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이날 브리핑이 끝난 후에는 기자가 직접 참여하는 스마트접견 시연이 이루어졌으며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설명도 이어졌다.

2단계로 추진되는 '수용정보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은 수용관리, 수용자 상담 등을 통해 수집된 수용자의 개별 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수용자 분류를 더욱 과학화하는 것이다. 이를 기초로 수용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심리치료 등 개별 처우가 강화되어 재범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추진되는 3단계 '지능형 계호 시스템'은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한 위치정보시스템과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영상계호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상 수용자의 특이동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사고 예방 및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수용자의 위치와 건강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손목시계형 '스마트밴드'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수용자가 스마트밴드를 착용하면 교도관이 항상 동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감시받는다느 느낌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기능도 포함돼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교도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설명 후에는 다소 낯설어하는 현장의 기자들을 위해 지능형 계호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마트밴드를 통해 수용자들의 위치와 행동패턴을 파악하여 응급 및 돌발 상황에 교도관이 즉각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상이었다. 브리핑 말미에는 첨단정보통신기술 도입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의 대응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법무부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에 접근 가능한 권한을 최소화하고 접근 기록을 남기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출소 이후에는 수

용자의 정보를 폐기하는 규정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관련 기술을 먼저 도입한 해외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스마트교정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가 직접 참여하는 스마트접견 시연으로 이해 높여

이번 브리핑 현장에서는 제주교도소 직원과의 스마트접견 시연이 진행되었다. 현장에 있는 기자 한 명이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해 멀리 제주에 있는 직원과 접견을 시도해 보았다.

스마트접견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관련 앱을 설치하고, 사전에 접견 예약을 해야된다. 예약한 시간에 앱을 실행하여 본인 인증 후 승인되면 접견이 시작된다. 모든 과정을 거쳐 제주교도소 직원과 접견에 성공한 기자는 다양한 질문을 통해 스마트접견으로 얼마만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지 보여주었다.

브리핑이 끝난 후에는 현장에 있는 기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이 마련됐다. 스마트접견 시스템, 스마트밴드 등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기자들의 수많은 질문이 쏟아져 새로 구축되는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앞으로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스마트 교정시설이 조성되면 교정부의 역량을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집중시켜 재범 방지 및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성 교차 관리 (cross-gender supervision): 쟁점과 가능성 (下)*



- I. 서론
- II. 성 교차 관리에 대한 쟁점 및 선행연구 검토
- III. 한국 수용자와 교도관의 성 교차 관리에 대한 인식
- IV. 결론

* 본 연구는 2017학년도 경기대학교 연구년 수혜로 연구되었음.
 **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교수.
 ▶ 교정연구 제29권 제2호 통권 제83호에 실린 논문을 수정 보완하였음.
 ▶ 접수일(2019. 6. 2.) 심사일(2019. 6. 20.) 수정일(2019. 6. 24.) 게재확정일(2019. 6. 26)

III. 한국 수용자와 교도관의 성 교차 관리에 대한 인식

1. 연구대상과 방법론

교도소에서의 성 교차 관리와 여자교도관의 직무수행 능력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활용한 혼합 연구(mixed methods research)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는 저자가 2014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지원을 받아 수행한 교정 조직문화와 여자교도관의 직무역량에 관한 연구¹⁾의 일환으로 시행된 교도관과 남자수용자 대상 설문조사의 해당 항목과 교도관 심층면접 내용 중 해당 자료이다. 남녀 교도관 450명, 남자수용자 2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남녀 교도관 20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표집은 교도관과 수용자 모두 4개 지방교정청별로 권역화하여 교정 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총 10개의 교도소를 선정하였다.²⁾ 교도관에 대한 심층면접은 전국의 5개 교도소에 근무하는 남녀 교도관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 이 연구는 남성이 지배적인 교정조직의 문화적 특성과 남녀 교도관의 직무에 대한 인식, 성 고정관념, 직무역량 등을 비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과제번호 NRF-2014S1A5A2A03065518).1)

2. 수용자와 교도관의 성 교차 관리에 대한 인식

1) 남자수용자의 여자교도관에 대한 인식

남자수용자에게는 여자교도관에 대한 성 고정 관념적 인식, 여자 교도관의 직무역량에 대한 인식, 여성으로서의 인식정도, 여자교도관의 장점, 사생활 침해에 대한 염려정도 등 7문항을 질문하였는데 그 응답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여자교도관을 이성으로서 느끼는 지에 대해서는 약 9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을 하였고, 여자교도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으면 더 기분이 나쁜지를 물어보았더니 85%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하였다. 한편 “교도소에서 일하는 것은 여성에게는 맞지 않다”는 진술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2/3(6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약 10%정도만이 교도소에 여자교도관이 근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주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여자교도관의 대처능력은 신뢰할 수 없다”는 진술은 여자교도관의 신체적 열세에 대한 인식이 어떨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물어본 것인데 예상보다는 많은 남자수용자들이(52.6%)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술에 동의하는 응답자의 비율(‘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의 합계 퍼센트)도 47.4%에 이르고 있어 여자교도관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자교도관들은 고민이나 문제에 대해 남자교도관보다 더 잘 이해한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53%가 긍정적인 의견을 나머지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이 진술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여자교도관들은 교도소 내 분위기를 편안하게 해준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29%가 강한 찬성을, 32%가 약한 찬성을 하여 60%가 찬성의견을 나타내었다. 이 두 진술은 선행연구에서 여자교도관들의 특성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며 우리나라 남자수용자들도 여자교도관의 이러한 특성에 대해 상당히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에 큰 무리가 없

<표 2> 남자수용자의 여자교도관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합계
여자교도관에 대해 이성으로서 매력을 느낀다	123(62.8)	53(27.0)	19(9.7)	0(0.0)	1(0.5)	196
여자교도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으면 더 기분 나쁘다	113(59.5)	49(25.8)	20(10.5)	3(1.6)	5(2.6)	190
교도소에서 일하는 것은 여성에게 맞지 않다	84(44.0)	45(23.6)	44(23.0)	11(5.8)	7(3.7)	191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때 여자교도관들의 대처능력은 신뢰할 수 없다	54(28.7)	45(23.9)	59(31.4)	16(8.5)	14(7.4)	188
여자교도관들은 고민이나 문제에 대해 남자교도관보다 더 잘 이해한다	54(29.2)	33(17.8)	54(29.2)	27(14.6)	17(9.2)	185
여자교도관들은 교도소내 분위기를 편안하게 해준다	46(24.7)	27(14.5)	59(31.7)	34(18.3)	20(10.8)	186
개인적인 사생활을 여자교도관에게 들키는 건 불편하다	125(67.9)	33(17.9)	15(8.2)	5(2.7)	6(3.3)	184

2) 교도관과 수용자 표본의 전체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김은영, 윤옥경(2015), “교정의 미래와 여자교도관의 역할.”과 윤옥경, 김은영(2016), “교도소 직무환경에 대한 교도관의 인식: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를 참조할 것.

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생활을 여자교도관에게 들키는 건 불편하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86%가 압도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보여주어서 개인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아직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직 여자교도관이 남자수용자를 대면하고 관리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응답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자수용자들의 여자교도관에 대한 태도를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여자교도관들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남자교도관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자교도관들은 고민이나 문제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경향이 있고 분위기를 더 편하게 해 준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여자교도관을 이성으로서 보거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염려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생각은 선행연구에서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라고 하겠다.

3. 교도관들의 여자교도관의 직무능력과 성 교차 관리에 대한 인식

아래의 <표 3>에서는 여자교도관의 직무능력, 여자교도관의 장점, 성 교차 감독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여부, 그리고 성 교차 감독 시 여자 교도관의 위험에 대한 남녀 교도관들의 인식을 물어본 결과이다.

<표 3> 교도관들의 성 교차 관리에 대한 인식

	성별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chi-square
교도소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여자교도관의 대응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	남	43(16.6)	45(17.4)	60(23.3)	62(24.0)	48(18.6)	258	81.8 (df=6)*
	여	74(46.5)	41(25.8)	33(20.8)	6(3.8)	5(3.1)	159	

여자교도관들이 남자수용자들의 심리적 불안이나 공격적 행동을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남	43(16.5)	24(9.2)	72(27.7)	84(32.3)	37(14.2)	260	16.4 (df=6)**
	여	6(3.9)	15(9.7)	44(28.6)	57(37.0)	32(20.8)	154	
여자교도관들이 남자수용자를 관리한다면 남자수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남	74(28.6)	43(16.6)	71(27.4)	38(14.7)	33(12.7)	259	11.3 (df=6)
	여	40(25.6)	40(25.6)	27(17.3)	27(17.3)	22(14.1)	156	
여자교도관이 남자수용동에 들어가게 된다면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될 위험이 아주 높다	남	46(17.7)	23(8.8)	47(18.1)	71(27.3)	73(28.1)	260	15.4 (df=6)**
	여	15(9.6)	18(11.5)	36(23.1)	44(28.2)	43(27.5)	156	

* p<.01, ** p<.05

교도소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여자교도관의 대처능력에 대한 교도관들의 인식은 성별로 차이를 보인다. 남자교도관들은 여자교도관들의 위기대처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 비율이 높은 반면에 여자교도관들은 자신들의 위기대처능력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약 47%의 여자교도관들이 자신들의 위기대처능력에 대해 자신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여자교도관들이 남자수용자들의 심리적 불안이나 공격적 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진술에 대해서도 남녀 교도관의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여자교도관이 남자수용자의 공격성을 완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남자교도관이 16%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여성은 3.8%만이 여성의 남자수용자 진정능력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성 교차 관리 감독이 남자수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진술에 대해서는 남녀 교도관 모두 그것이 사생활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있다고 보는 비율(매우 그렇다)보다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응답비율(전혀 아니다)이 월등히 높다. 성 교차감독을 시행하게 되면 여자교도관이 남자수용자에게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성별에 관계없이 남자교도관, 여자교도관 모두 그 위험이 크다는 것에 동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교도소 상황에서 “여성”이 부각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여자교도관의 남자수용자 관리에 대한 남녀 의견차이

	매우 반대	반대 하는 편	찬성 하는 편	매우 찬성	모르겠음	합계
남교도관	29 (11.2)	46 (17.8)	106 (40.9)	43 (16.6)	35 (13.5)	259 (100.0)
여교도관	17 (11.0)	34 (21.9)	71 (45.8)	14 (9.0)	19 (12.3)	155 (100.0)
합계	46 (11.1)	80 (19.3)	177 (42.8)	57 (13.8)	54 (13.0)	414 (100.0)

chi-square=5.573(df=4), p) .05

이번에는 남녀 교도관들에게 여자교도관의 남자수용자 관리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였고 그 결과를 성별로 나누어 제시해 보았는데, 여자교도관의 남자수용동 감독에 대해서는 남녀에 상관없이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남자교도관의 57.5%, 여자교도관의 54.8%가 여자교도관의 남자수용동 관리에 대해 찬성의견을 보여 주었다.

〈표 5〉 성 교차 관리에 대한 찬성이유

	남자 교도관	여자 교도관	합계
여자교도관도 남자수용자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34 (23.1)	25 (30.5)	59 (25.8)
여자교도관의 공감능력과 모성적 특성이 남자수용자의 안정과 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44 (29.9)	37 (45.1)	81 (35.4)

현행 성별을 고려한 직무배치는 인력관리의 유연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60 (40.8)	17 (20.7)	77 (33.6)
여자교도관이 남자수용자를 관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6 (4.1)	3 (3.7)	9 (3.9)
기타	3 (2.0)	0 (0.0)	3 (1.3)
전체	147 (100)	82 (100)	229 (100)

Chi-square=12.552(df=4), p< .05

여자교도관의 남자수용동 감독에 대해 찬성의견에 응답한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성 교차감독에 대한 찬성이유를 알아보았다. 남자교도관들은 현행 직무배치가 인력관리의 유연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0.8%로 1위, 여자교도관의 공감능력과 모성적 특성이 남자수용자의 안정과 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9.9%로 2위, 여자교도관도 남자수용자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23.1%로 3위로 나타났다. 여자교도관의 경우에는 여자교도관의 공감능력과 모성적 특성이 남자수용자의 안정과 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5.4%로 1위, 현행 직무배치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 33.6%로 2위, 여자교도관도 남자수용자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30.5%로 3위를 나타내었다. 남자교도관의 직무배치의 효율성에, 여자교도관은 여자교도관의 공감능력과 모성적 특성에 제일 높은 비율의 응답이 몰렸다.

4. 성 교차 관리에 대한 교도관 심층면접 결과

1) 면접대상자의 선정과정과 대상자 특성

교도관들의 성 교차 관리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5개 교도소의 20명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진행이 되었으며 1명당 4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선택된 교도소는 서울과 수도권, 충청지역과 전라지역이다. 면담대상자는 여성이 11명, 남성이 9명이며, 직급은 9급이 1명, 8급이 6명, 7급이 11명, 6급이 2명이었다. 근무경력은 가장 짧게 근무한 직원이 5년 6개월이고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은 26년 6개월이었다.

〈표 6〉 면접대상자의 특성

일련번호	교도소	성별	직급	근무경력
1	A	여	7	15년5개월
2	A	남	9	6년

3	A	여	7	10년
4	A	여	6	26년6개월
5	A	여	8	8년
6	A	남	7	-
7	B	여	6	19년11개월
8	B	여	7	23년10개월
9	B	여	7	25년
10	C	남	7	26년5개월
11	C	남	7	14년6개월
12	C	남	8	9년8개월
13	D	여	8	9년
14	D	남	8	6년9개월
15	D	여	7	17년
16	D	남	7	9년
17	E	남	7	15년5개월
18	E	남	7	14년
19	E	여	8	5년6개월
20	E	여	8	9년7개월

2) 성 교차 관리에 대한 남녀 교도관의 의견

성 교차관리에 대한 교도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면접대상자 20명 가운데 성 교차 관리의 필요성이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교도관이 8명이고 부정적 의견이 12명이었다. 성별로 나누어 보면 여자교도관 11명 중 긍정의견이 4명, 부정의견이 7명이었고, 남자교도관 9명 중에서는 긍정적 의견이 4명, 부정적 의견을 가진 교도관이 5명으로 나타나 남자교도관들 사이에는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나왔다.

A. 성 교차관리에 대한 찬성의견

(1) 공권력의 권위

공권력의 권위를 가지고 남자수용자를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 여교도관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자리가 한계가 있어서 사무직, 여사만 가능하지만 막상 하면 다 합니다. 공권력을 믿는거죠, 50%는 들어갈거라고 생각해요. (사례7)
- 유니폼을 입으면 성인식이 낮아진다는데 제복의 힘이죠. (사례14)
-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든요. 공권력이 가지는 신뢰문제로, 어차피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요. 지금도 때리면 맞아야죠. 뭐 여

교도관들이 인질로 잡힐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하니까 저는 남성분야에 참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사례18)

(2) 여성의 능력에 대한 확신

여성의 섬세함과 공감능력이 교정현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불안감과 성 고정 관념적 인식이 성 교차 감독 제도 도입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지적도 있다.

- 여교도관이 남자수용자들을 관리하게 되면 일단 남자만 있는 거 보다는 위화감이 덜할 거 같다. 수용자들이 처음에는 성적인 농담도 할 거 같고, 하지만 처음부터 대응을 강력히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일이다. 남자교도관도 여사에 들어와서 같이 근무하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다. (사례7)

- 닥치면 할 수 있다고 봐요. 역량이 있다고 보는데, 남자수용동에서 감독자 정도는 여자교도관이 하면 괜찮을 듯. (사례2)

- 상사들은 절대 여교도관이 남자수형자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마라 하시더라고요, 30년 넘게 근무하셨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는 교육받을 때 이미 남녀평등에 입학한 교육을 모두 받았어요. 보수적인 윗분들이 극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보다 나은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점진적으로 추진해서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여자는 나약하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규정하세요, 여교도관들은 더 섬세하게 통솔할 수 있거든요, 소리 지른다고 통제할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사례20)

(3) 복수근무 조건부 찬성

여자교도관이 남자수용동에서 근무가 가능하지만 여자교도관 혼자 수용동에서 일하게 하는 건 안되고 야간에 혼자있어서도 안되고 대신 복수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 당연히 위험은 하겠죠. 중요한 건 교도소 자체가 위험한 곳이에요. 여교도관을 혼자 배치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복수근무라든지 여러 명이 근무할 때 여교도관이 한 명 있으면 가능하죠. 왜냐하면 외국에선 대부분 그러고 있거든요. 물론 야간에 혼자 있는건 힘들다고 봐야죠. 나머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례2)

- 처음에는 힘들겠죠.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적응이 되면 다 하거든요. 처음엔 무섭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돼요 복수 근무해야 합니다. 수용자 관리는 복수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남자와 동일하게. (사례10)

(4) 일정한 유형의 범죄자에게 가능

여자교도관이 남자수용동 근무를 할 수 있지만 모든 수용자는 아니고 일정유형의 범죄자들은 관리감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도 있었다. 범죄성이 강하지 않은 수용자들부터 시작해보자는 의견이다.

– 함부로 말할 것도 여자가 쉬임으로써 유해지는 분위기가 좋긴 좋겠으나 성범죄같은 경우에는 더 미쳐 날뛰겠다. 상스러운 사람들은 언어적으로 유희하고 깔보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경제사범이나 초범, 교통사고 사범, 과실범 등을 관리하게 하면 괜찮을것 같다. ^(사례5)

– 안전장치가 다 있고 어느정도 수행자를 가려서 한다면 꼭 여자라서 위험하고 남자라서 위험하지 않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수행자를 분류해서 이성적으로 제어가 안되는 사람은 좀 제외하고 선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도 될 거 같아요. 민영교도소도 절대 안된다했는데 지금 하고 있구요. 수행자 자치수용동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또 하나까 잘 되고 있고 처음에는 심리센터도 굉장히 우려가 많았어요. 잘 되고 있잖아요. ^(사례 15)

– 미국처럼 일반수용동에도 여교도관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건 사고를 많이 줄일 것 같아요. 수행자들도 상황이 되어야 범죄를 하지 이 수행자들도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옳고 그름 정도는 구분해요. 평범한 수준의 수행자가 많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단계적으로 진행해도 될 거 같아요. ^(사례 17)

B. 성 교차관리에 대한 반대이견

반면에 부정적인 견해도 많이 있다. 성 교차감독 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신체적 열세와 성폭력 등에 대한 위협과 불안감이다.

(1) 신체적 열세

여자교도관은 신체적인 힘이 부족하여 남자수용자들의 공격적 행동을 제압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소내 질서유지를 확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 여교도관 1-2명을 수용동에 배치하면 확 덮치고 그런 것들을 무시 못하죠. 힘으로는 못 당하니까요. 저희동 미친 여자 1명은 힘이 세서 4명이 붙어도 안돼요. 신체적으로 일단 안되고 남자들 개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요. ^(사례)

– 남자수형자들을 관리하려면 신체적인 특성이 되어야 하는데 여자교도관들이 남자를 계호할 수 있는 환경, 시설, 장비의 어려움이 있다. 직접 계호보다 고충상담, 심리상담, 교육, 직업교육 등은 할 수 있다. 요사이 여자 과장님도 많이 생기고 남자 수용자들을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사례4)

– 사고가 터지면 엄청 클 거 같아요.. 그런 쪽으로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가 된다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남자수형자는 흉악범도 많고 조금 위압감도 느껴지고요. ^(사례 19)

(2) 성폭력의 위험

남자수용자에 의한 성적 공격에 대한 염려와 걱정도 성 교차감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의 이유가 되고 있다.

– 돌발적인 상황 99번 잘 막아도 1번 터지면 큰일이다. 그 여성은 인생이 끝날 수 있다. 모든 제반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 교정시설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25년 일한 사람도 뒤에서 쇠파이프 맞아서 죽는데 어디서 뭐가 일어날지 모른다. ^(사례6)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성 교차 관리에 대한 생각을 알아본 결과 긍정적인 의견에서는 먼저 여자교도관도 공권력의 권위를 가지고 남자수용자를 관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여성들의 역량이 남자수용자를 관리할 만큼 있기 때문에 성 교차관리를 찬성하는 입장도 있었다. 특히 여성의 공감적 특성이 위화감을 덜 준다거나 성 교차관리에 대한 생각이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남성직원과의 복수근무나 위험성이 덜한 수용자부터 시작해보는 등 일정조건 하에서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성 교차관리를 반대하는 의견은 크게 두가지로 수렴되었는데 여성의 신체적 열세와 성폭력의 위험이었다.

IV. 결론

이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분야 중 가장 낮은 여성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곳이 교정영역이고, 다른 형사사법 분야인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여성 비율이 높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이 영역에서의 여성의 비율이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교정영역으로의 여성의 진출을 막는 가장 큰 장애는 “동성에 의한 동성 수용자 관리”라는 생각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오랫동안 별로 문제제기 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고용상의 평등의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동성에 의한 관리’라는 전제 자체에 의문을 가지게 되고 반드시 동성에 의한 관리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학계뿐 아니라

법원의 결정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성 교차 관리에 대한 쟁점이 부상하게 되는데, 쟁점은 크게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 여자교도관의 직무능력, 그리고 남자수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고용상의 평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격적이고 난폭한 남자범죄자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여자교도관은 신체적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남자수용자들은 여자교도관을 교도관으로 보기보다는 ‘여자’로 보고 성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서 위험하고 따라서 교도소의 질서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여자교도관의 남자수용자 관리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성 교차관리에 반대하는 대표적 근거였고, 반면에 성 교차 관리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남자수용자를 반드시 남자교도관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그 근거가 약하고 여자교도관의 직무수행 능력과 공감 능력, 모성애적 특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교도소 질서유지와 안전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를 주장한다. 여자교도관의 직무수행능력이 남성교도관과 큰 차이가 없으며 수용자의 폭력적 행동에 대한 대처에도 큰 차이가 없음이 여러 선행연구에 의해 검증되기도 하였다. 또한 검신이나 밀착감시 등이 남자수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교도소 질서유지와 관리를 위해서는 남자수용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은 양보되어야 한다는 판결에 의해 논박되었다. 그리고 고용에 있어서의 양성평등과 차별금지라는 가치가 여자교도관의 남자수용자 관리라는 성 교차관리의 시행을 지지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미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남자수용자들과 남녀 교도관들은 여자교도관의 직무능력이나 위기대처 능력, 남자수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나온 결과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수용자들은 여자교도관에 대해 이성으로 느끼지 않고, 여성이 교도소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별로 없었다. 여자교도관의 위치대처 능력에 남자수용자들의 의견이 양분되고 여자교도관에게 사생활을 들키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남녀 교도관들의 여자교도관에 대한 인식과 성 교차 관리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 성별로 차이가 있었다. 위기상황 대처능력에 대해서 남자교도관들은 여자교도관의 대처능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여자교도관들은 자신들의 위기대처능력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여자교도관이 남자수용자들의 공격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남녀 교도관 모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여자교도관들

의 긍정비율이 훨씬 높았다. 남녀 교도관 모두 성 교차관리의 남자수용자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고 여자교도관이 남자수용자에게 성적 대상으로 취급될 위험에 대해서는 남녀 교도관 모두 그럴 위험이 있다고 보는 비율이 비슷하게 높았다.

셋째, 성 교차관리에 대한 남녀 교도관의 의견을 보면 성별에 관계없이 성 교차 관리에 대해 찬성비율이 높았다. 성 교차관리 찬성이유에 대해서 남자교도관은 직무배치와 효율적 인사관리를 첫 번째 이유로 꼽았고 여자교도관은 여성적 특성이 남자수용자의 교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일 많은 이유로 제시했지만 남녀 교도관 모두 여성의 직무수행능력이 남자수용자를 관리하기에 충분하다는 의견에도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넷째, 남녀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성 교차 관리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종합해 보니, 9명의 남자교도관 중 4명이 긍정, 5명이 부정적 의견을 보였고, 11명의 여자교도관 중에서는 4명이 긍정, 7명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긍정적 견해를 보인 교도관들이 제시한 성 교차관리의 찬성의견을 보면 공권력의 권위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여자교도관도 수용자들을 권위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다는 의견에서부터 여성의 직무수행능력을 높이 사는 견해, 그리고 복수근무를 제안하기도 하고, 일단 범죄성이 크지 않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해 보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성 교차 관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은 여자교도관의 신체적인 열세와 성적인 위협으로 모아졌다.

실제로 성 교차 관리에 대한 수용자와 교도관들의 의견을 알아본 결과 성 교차관리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의견도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 교차관리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가 인사와 배치의 효율성 때문이든 여성의 직무능력에 대한 확신 때문이든 교도관들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동성에 의한 동성수용자 관리의 원칙이라는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지던 전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현재도 그 원칙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³⁾ 즉 학계에서나 실무적 차원에서 앞에서 제기한 성 교차관리와 연관된 여러 쟁점들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을 공유하고 그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등 제2조 1의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교도관의 업무가 이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무부장관 광주교도소 코로나19 대응실태 점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지난 5월 18일 광주교도소를 방문하여 외부 감염원에 대한 선제적 차단과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시설 운영 방안 등 코로나19 현장 대응 실태를 점검하였다. 또한 수형자 직업훈련 등 주요 교정정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수형자들을 격려했다.

교정본부장 서울구치소 코로나19 대응 실태 점검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지난 5월 15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직원 확진 관련 기관 대응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 자체 선별진료소 현장 및 검체채취 과정 등을 확인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는 현장 직원을 격려했다.

교정본부장 서울경제 인터뷰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지난 5월 1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교정시설 현대화가 수용자 교정교화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과밀수용 및 인권침해 문제 해소를 위한 새로운 교정시설 설계기준 도입 등을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인터뷰는 지난 5월 19일 서울경제 신문 지면에 보도되었다.

혁신·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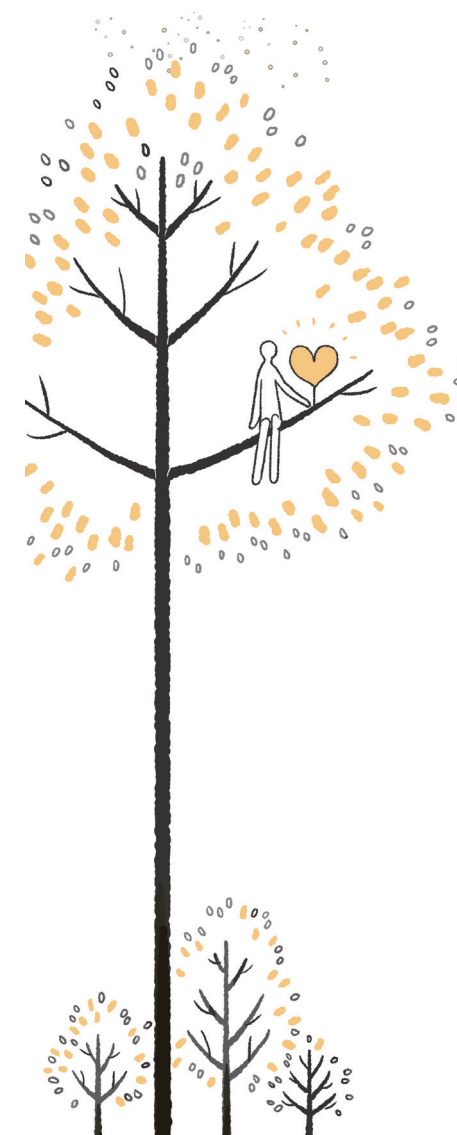
교정본부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혁신·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교정본부 각 부서 및 전국 교정기관에서 혁신·행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개선 성과가 있거나, 행정 생산성이 향상된 우수사례 총 37건을 제출하였으며, 국민과 내부 위원이 공동으로 참여한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이 중 우수사례 5건이 선정되었다. 5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수사례 5건에 대한 '국민참여 온라인 심사'가 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교정본부 분류심사과의 '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관리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6월 중 우수사례 추진기관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우수사례는 뒷페이지의 '카드뉴스'에서 확인하세요.

교정작품쇼핑몰 할인 판매 행사 개최



교정본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2주간 교정작품쇼핑몰 할인 판매 행사를 개최하였다. 국민들에게 교정작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교정작품쇼핑몰(보라미몰)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서랍장, 보석함, 도자기 등 수형자들이 정성들여 만든 다양한 교정작품들이 70% ~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었다.





CARD NEWS

1

국민 여러분들이 직접 선정해 주신
교정본부 및 전국 교정기관의
혁신·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2

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관리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최우수 사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는 고위험군 수형자 관리를 위해 권역별 분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어요!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 분류심사를 통해 유형별 처우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출정현황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출정행정업무 혁신

의정부교도소는 '출정현황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출정현황 작업의
업무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어요!



4

활동성 근무화 구매방식 개선을 통한 고품질 근무화 보급

서울구치소는 직원 근무화 제조업체 입찰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품질의
근무화 납품에 기여하였어요!



5

원외처방전 발급을 통한 치입의약품 제도 개선

대전교도소는 국민건강심사평가원으로부터 대전교도소 부속의원 요양기관
번호를 부여받았어요! 교정시설 내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대전교도소
부속의원에서 발급한 원외처방전으로 원활한 투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6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교정정책 해외 홍보 강화

교정본부 사회복귀과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화 프로그램을 각국의
언어로 더빙하여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어요!



7

법무부 교정본부는 앞으로도 혁신·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국민과 공유·확산함으로써
창의적인 행정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유경열

사랑의 손잡기 모금 실시

서울지방교정청은 5월 27일 '사랑의 손잡기' 모금을 실시하고 3곳의 어려운 가정에 모금액을 전달했다. 이번 모금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기부를 받은 가정에서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서울구치소 / 교도 김상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속조치 실시



서울구치소는 5월 15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로 선별진료소에 드라이브스루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 및 의왕시 보건소에서 파견된 역학조사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추가 확진자가 없음을 확인했다. 서울구치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안양교도소 / 교위 박준석

수용자 족구대회 개최

안양교도소는 5월 6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수용자 족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처우 제한으로 누적된 수용자의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26개 팀이 참가했으며 상위 3개 팀에게는 컵라면을 부상으로 지급했다.

수원구치소 / 교위 배창현

직장 어린이집 '어린이날' 선물 전달

수원구치소는 5월 4일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직장 어린이집인 '보드미 어린이집' 원아 14명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정병현 소장은 "어려운 시기지만 아이들이 웃음을 잃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며 보육교사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사 최재완

청사 로비 쉼터, 열린 휴게공간으로 변신

서울동부구치소는 5월 22일 청사 로비를 열린 휴게공간으로 조성했다. 청사 로비는 소파만 비치되어 있어 다소 딱딱한 느낌을 주던 공간이었으나 파티션을 설치하고 녹색식물 화분을 비치하여 이국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의 쉼터로 변모해 방문 민원인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구치소 / 교도 이남웅

봄맞이 대청소 실시

인천구치소는 5월 6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봄맞이 행사로 각 부서별 지정구역 대청소를 실시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각 부서별로 청소 일자를 다르게 하여 잡초 제거, 환경 정화 등을 실시했다. 대청소에 참여한 직원들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변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김광찬

교정협의회, 손 소독제 400개 기증

서울남부구치소는 5월 1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손 소독제 400개를 기증받았다. 이날 기증받은 손 소독제는 수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수용동에 비치됐다. 오홍균 소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이재희

소 내 미술작품 전시 전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4월 29일 ㈜서울옥션으로부터 현대미술작가 작품 20점을 기증받아 주북도에 전시하고 직원 및 수용자들이 수시로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작품은 5월 이후에도 상설 전시하기로 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서울옥션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소 내 미술작품 전시공간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김길용

직원식당 환경 개선 실시

의정부교도소는 5월 7일 직원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해 직원식당 환경을 개선했다. 노후 조리시설 및 위생복을 교체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했으며, '오늘의 조리사'를 알리는 책임 조리원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식당 명칭을 직원 공모를 통해 '아름다운 음식을 먹는 집'이라는 의미의 '미식가'로 정했다.

여주교도소 / 교사 하승환

지역 노인복지관 후원 나눔 행사 실시



여주교도소는 5월 7일 지역 노인복지관과 함께 후원 나눔 행사를 가졌다. 여주교도소 보라미 봉사단과 종교 동호회가 후원금을 모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봄 재킷과 결연 후원금을 전달하는 자리였다. 노인복지관 이석자 관장은 "코로나19로 규모를 최소화했지만 고마움과 따뜻함은 적지 않았던 뜻깊은 행사"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명수환

인근 아파트단지 경비실 위문품 전달 및 격려

서울남부교도소 야구동호회 남부캡틴스 직원들은 5월 23일 인근 아파트단지 경비실에 위문품을 전달했다. 경비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응원하고자 동호회원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담은 행사였다. 서울남부교도소는 앞으로도 배려와 포용으로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고 함께 나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노력할 예정이다.

춘천교도소 / 교도 이근희

수용자 검정고시 실시

춘천교도소는 5월 23일 수용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제1회 검정고시'를 실시했다. 시험장 입실 전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대응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시행됐다. 춘천교도소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적이 우수한 수용자에게는 검정고시 응시 기회를 주고 있다.

원주교도소 / 교사 천병훈

정원수 병해충 방제 실시

원주교도소는 5월 13일 원주시청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요청하여 청사 주변에 식재된 정원수의 병해충 방제를 실시했다.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정원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직원은 물론 소를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아름다운 힐링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강릉교도소 / 교위 이태석

봄철 산불 대비 소방훈련 실시

강릉교도소는 5월 26일 봄철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장거리 소방호스 연결 등을 비상대기숙소와 외부정문에서 실시했다. 김일환 소장은 "2017년 5월 산불 당시 강릉교도소는 큰 화마와 싸운 적이 있는 만큼 산불에 대비하여 수시로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영월교도소 / 교도 정옥수

코로나19 대응 직원 격려 간식 지급

영월교도소는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햄버거 세트를 지급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영월군 읍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했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위 윤우리

직원 심신케어 프로그램 실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5월 27일 직원 혈관 건강도 및 스트레스 수치 측정을 실시했다. 또한 직원 휴게실에 체지방 측정기를 설치함으로써 활력을 회복하고 업무효율을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직원들은 "평소에도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으로 개인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소망교도소 / 장형선

수용동 복도 '테마가 있는 거리' 조성

소망교도소는 5월 22일 수용동 복도에 '테마가 있는 거리' 조성 작업을 완료했다. 이번 작업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됐으며 수용자 그림 작품 전시 및 수용자들이 직접 참여한 벽면 페인트 작업을 통해 완성됐다. 작업에 참여한 수용자들은 "우리 손으로 꾸며진 복도를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이지훈

전입직원 신고 실시



대구지방교정청은 5월 25일 청장실에서 전입직원 신고식을 가졌다. 이경식 대구지방교정청장은 전입직원들에게 기본과 원칙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많은 임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전입직원 9명은 새로워진 업무와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여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대구교도소 / 교위 김재현

자매결연마을 토마토 직거래 장터 개최

대구교도소는 5월 20일 연무관 앞에서 자매결연마을인 싹싹마을(달성군 농공읍 삼라리)의 특산물 토마토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토마토 200여 상자가 완판됐다. 김승만 소장은 "앞으로도 자매결연마을과의 상호교류 증진, 장학금 전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정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 / 교사 최병철



코로나19 극복 컵라면 기증 행사 개최

부산구치소는 5월 4일 수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 컵라면 기증' 행사를 가졌다. 교정위원이자 대한불교선교종 대법사인 김성연 주지의 지원으로 컵라면 117박스를 수용자들에게 전달했다. 유태오 소장은 "따뜻한 마음에 힘을 얻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순간까지 감염증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진용혁

보라미 어린이집 격려 방문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5월 1일 어린이날 및 스승의날에 즈음하여 경북북부교정기관 직장 보육시설인 '보라미 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별도의 행사 없이 격려품만 전달하고 어린이집 보육환경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방문일정을 마쳤다.

창원교도소 / 교도 한기상

제52대 오광운 소장 취임식 개최

창원교도소는 5월 18일 제52대 오광운 소장 취임식을 가졌다. 오광운 소장은 직원들과 첫인사를 나누며 "법과 원칙에 입각한 교정행정을 실현하고,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직원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즐거운 직장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교도소 / 교위 박종철

김선영 작가 초청 사진전 개최

부산교도소는 5월 18일부터 일주일간 김선영 작가 초청 사진전 '공존'을 개최하였다. 이번 사진전은 각종 교회행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수용자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도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김선영 작가는 "수용자들에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포항교도소 / 교도 김병수

지진대피 및 소방훈련 실시

포항교도소는 5월 21일 구내 작업장에서 지진·화재 발생에 따른 대피 및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직원들로 구성된 자위소방대 및 수용자가 함께 참여했으며, 지진·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초동조치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정창현 소장은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진주교도소 / 교위 성태현

청렴도 제고를 위한 직원 교육 실시

진주교도소는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10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영상물 시청 교육을 실시했다. 이 영상은 갑질 근절, 청렴, 공무원 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사회적 거리두

기 방침에 따라 집합교육을 대신해 직원들이 각자 휴식 시간이나 일과 종료 후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구치소 / 교도 김경민

신규 의료기술주사 임용식 개최
대구구치소는 5월 18일 신규 의료기술주사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간소하게 치러진 이번 임용식은 신규 직원의 새 출발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시간이 됐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하우현

신규 직업훈련교사 임용식 개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5월 20일 신규 직업훈련교사 임용식을 개최했다. 소장 및 각 부서장이 참석한 이번 임용식에서 류동수 소장은 축사를 통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수용자 직업훈련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교도소 / 교사 김길수

직원 비상대기숙소 냉방기 설치
안동교도소는 5월 7일부터 직원 비상대기숙소에 냉방기 설치 작업을 시작했으며 6월 초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매년 무더위로 밤잠을 설치던 안동교도소 직원들이 이번 냉방기 설치로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숙소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사 심상현

교정위원회 생수 기증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5월 18일 교정위원회로부터 수용자 생수 10,000병을 기증받았다. 교정위원회는 “폭염이 예상되는 여름을 앞두고, 이 생

수가 수용자들의 더위와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하며 아울러 교정교화와 시설의 질서유지에도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조덕래

직원 비상대기숙소 냉방기 설치
김천소년교도소는 5월 11일부터 21일까지 10여일 동안 직원 비상대기숙소에 냉방기를 설치했다. 매년 무더위로 밤잠을 설치던 김천소년교도소 직원들이 이번 냉방기 설치로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숙소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이영진

교정협의회 수용자 격려품 기부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5월 26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 격려품으로 초코파이 10,000개를 전달받았다. 구진섭 교정위원은 격려품을 전달하면서 “이번 격려품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수용자들의 긴장감 완화와 복지향상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울산구치소 / 교사 황정목

‘칭찬의 날’ 지정



울산구치소는 5월부터 매월 15일을 ‘칭찬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다. ‘칭찬의 날’ 지정은 울산구치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복한 직장 만들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최종 채택된 아이디어다. 울산구치소는 ‘칭찬합니다’ 포스터를 자체 제작하고 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예정이다.

경주교도소 / 교위 조경동

전통시장 방문 및 지역 농산물 구입



경주교도소는 5월 13일 인근의 경주 중앙시장

및 성동시장에 방문하여 직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와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여 지역 농산품을 구입했다. 이번 시장 방문은 부서마다 자율적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데 힘을 보탬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통영구치소 / 교위 강구혁

통영 중앙시장 직원 단체 방문



통영구치소 직원들은 5월 14일 단체로 통영 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점심식사 및 물품구매 등을 했다. 노영길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으며, 매달 전통시장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밀양구치소 / 교도 최상훈

코로나19 대응 직원 격려 행사 실시

밀양구치소는 5월 19일 전 직원에게 햄버거와 음료수를 지급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시설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 직원들은 코로나19의 종식 때까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상주교도소 / 교위 이상빈

가정의 달 맞이 피자 나눔 행사 실시



상주교도소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피자 나눔 행사를 가졌다. 가정의 달을 맞아 실시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박해양

봄맞이 환경정비 실시

대전지방교정청은 5월 8일 봄을 맞이하여 청사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잡초 제거, 앞마당 쓸기, 훼손된 태극기 교체 등의 작업을 실시하고 전광판을 통해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도 동참했다. 대전지방교정청은 앞으로도 수시로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한 교정행정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대전교도소 / 교감 송재상

수용자 독후감 공모전 개최

대전교도소는 5월 13일 수용자 독후감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로 각종 교회행사가 중지된 상황에서 안정된 수용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총 36편의 공모작 가운데 최우수 작품을 포함한 26편을 최종 선정했다. 대전교도소는 앞으로도 독후감 공모전을 비롯한 수용자 정서 순화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청주교도소 / 교사 이승기

감사와 꿈 노트 쓰기 및 독후감 경진대회 개최



청주교도소는 5월 12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수용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해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감사와 꿈 노트 쓰기’ 및 독후감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작품에 대해 시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교정협의회장 등 3명이 참석하여 교화지원금 90만 원과 20만 원 상당의 간식을 후원했다.

천안교도소 / 교도 전인호

국민참여형 의료진 응원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 동참

천안교도소는 5월 4일 코로나19 사태로 고생하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페인에 동참했다. 천안서북소방서의 지목으로 참여하게 됐으며 천안교도소는 다음 주자로 한태환 천안개방교도소장, 이영호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장, 이달세 대전출입국사무소 천안출장소장을 지목했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은정

가정의 달 맞이 수용자 모시떡 지급

청주여자교도소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3일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모시떡을 지급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수용자들의 마음을 달래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빛과 소금 선교회에서 모시떡 800여 개를 기부하였다. 윤순풍 소장은 “힘든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수용자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따뜻한 정을 느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주교도소 / 교위 이희명

직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측정 실시



공주교도소는 5월 15일 각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혈관 노화를 측정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는 이 행사는 검사 결과에 따라 외부 전문상담을 연계하거나 내부 심리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원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충주구치소 / 교위 김인호

비상대기숙소 세탁실 개선 공사 실시

충주구치소는 5월 12일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비상대기숙소의 세탁실 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낡고 지저분한 바닥 타일을 교체하고 벽면 도색을 새로 하는 등 세탁실 내부 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기존 세탁기와 건조기가 오래되어 성능이

저하됨에 따라 각 1대씩 새로 구입했다.

홍성교도소 / 교도 조경환

국민참여형 의료진 응원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 동참

홍성교도소는 5월 12일 청사 2층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헌신한 의료진에게 존경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NH농협은행 홍성군지부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으며 홍성교도소는 다음 주자로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를 지목했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도 김영웅

국민참여형 의료진 응원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 동참

천안개방교도소는 5월 6일 사무청사에서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태환 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방역 관련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다음 참여자로 천안고용노동지청장, 아산경찰서장, 아산소방서장을 지목했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김승인

방호 및 재난대비 시설물 점검 실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5월 21일 방호 및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물 점검을 실시했다. 외곽 펜스와 창호 등 방호시설을 철저히 점검했으며 산물 등의 자연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농물 및 잡목을 제거하고 수로를 정비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박지우

직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행사 실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5월 15일 직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직원 휴게실에서 다과를 먹으며 스트레스 측정 및 해소 방법을 안내받았다. 또한 체지방 측정, 각종 심리검사 및 상담 등을 통해 업무에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안동일
소속 보안과장 영상회의 개최



광주지방교정청은 5월 27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영상회의실에서 '보호장비 사용과 수용자 인권 조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소속 보안과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신경우 청장은 "수용관리에 있어서 최우선 가치는 인권보호에 있음을 인식하고, 보호장비는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사용하여 각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광주교도소 / 교도 심우민
법무부장관 정책현장 방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5월 18일 일선 기관의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광주교도소 정책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시설 구내·외를 순시하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협심 단결하여 감염증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전주교도소 / 교위 박승훈
신규 조리원 환영회 개최



전주교도소는 5월 1일 신규 조리원 환영회를 가졌다. 이날 환영회에서 최병록 소장은 "조리원 업무가 고단하고 힘들겠지만 식중독 예방 등 사명감을 가지고 직원들 건강을 위해 청결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신규 조리원은 "가족에게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맛있고 건강한 식단을 제공할 것"을 다짐했다.

순천교도소 / 교사 이승현
사무실 꽃 생활화 캠페인 실시



순천교도소는 5월 1일부터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1 Table 1 Flower의 꽃 생활화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무실 꽃 생활화 캠페인은 직원들의 심리적·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축된 화훼농장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교도소 / 교사 김수인
행정발전협의회 개최

목포교도소는 5월 19일 청사 2층 소회의실에서 각과 서무 및 참여 희망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의 모범직원 추천, 제도개선 수범사례 발굴 등 여러 안건에 대해 토의했으며 직원 애로사항 및 개선안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군산교도소 / 교도 김재민
양육유아 돌잔치 개최



군산교도소는 5월 15일 직원 및 여성 수용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돌을 맞은 양육유아의 돌잔치를 개최했다. 교정협의회에서 돌잔치에 필요한 음식과 돌복 등을 후원했다. 신동운 소장은 "아기와 함께 생활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며 수용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사회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여성 수용자를 격려했다.

제주교도소 / 교사 황승민
제주의 맛을 더한 청사 환경 개선 실시

제주교도소는 5월 20일 행복한 직장 만들기 일환으로 청사에 제주를 대표하는 사진을 부착하고 돌과 꽃을 배치하여 제주다운 맛을 더했다. 제주교도소는 앞으로도 직원들에게는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는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흥교도소 / 교위 오창용
국제로타리 코로나19 방역물품 기증

장흥교도소는 5월 18일 국제로타리 3610지구의 후원으로 코로나19 방역물품을 기증받았다. 이날 기증받은 방역물품은 방진복 50벌, 마스크 6,000장, 손소독제 300개, 비접촉식 체온계 20개 등이다. 장흥교도소는 코로나19 감염이 산발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교정시설 내 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해남교도소 / 교사 이상문
사랑의 헌혈 행사 실시



해남교도소는 5월 8일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지난 2월에 이어 실시하게 된 이번 헌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더욱 심각해진 혈액 수급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행사이다. 해남교도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 행사를 통해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읍교도소 / 교도 박승현
사랑의 헌혈 행사 실시

정읍교도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혈액량 감소에 도움이 되고자 5월 20일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헌혈에는 동참을 희망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발걸음을 돌리는 직원들도 많아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국진 소장은 "오늘과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슬기롭게 대처하면 코로나19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교정공제회
회원 안내문 발송 및 운영현황 공개

교정공제회는 5월 20일 2019년 말 기준 개인별 퇴직급여금 안내문을 전국 각 지부 등에 발송했다. 또한 2019년도 교정공제회 운영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공제회의 운영 실태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6월 9일부터 교정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6월

모범공무원을 소개합니다



의정부교도소 교위 정미라

현재 총무과 수용기록계에서 민원·접견 업무를 담당하며, 수용자·직원 관련 각종 민원에 대해 친절함 응대로 호평받았다. 특히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시 수용자 부재자 투표 안내를 철저히 하여, 투표자 누락 등의 선거사고를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여성수용동 근무 시에는 수용동 내 독서 분위기를 조성해 수용자 교정교화에도 기여했으며 건강이 악화된 상태로 입소하는 수용자들을 수시로 면담하여 안정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경주교도소 교위 김소연

규정위반 또는 일탈행위 수용자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엄정 처우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해 수용생활 안정화에 기여했다. 평소 수용자들과 수시로 상담했으며 수용자들의 고충과 출원 사항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가정이 어려운 불우수용자나 무연고 수용자들을 위해 교정위원과의 자매결연을 주선하여 영치금을 지원했으며 법률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자문을 주선했다.



광주교도소 교감 이경희

총무과 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0년부터 달라진 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 요약 정보를 만들어 전 직원에게 공람토록 했다. 또한 놓치기 쉬운 추가공제 사항과 특별세액 공제 사항을 세부적인 공제 요건에 따라 정리하여 소속직원 개개인에게 알려줌으로써 기일 내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지출업무 담당자로서 타 부서, 지역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예산 확보 및 적정 배정에도 기여했다.



광주교도소 교위 조철희

기결운동 담당 근무자로, 매사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법 집행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수용질서 확립 및 교정사고 방지에 기여한 모범직원이다. 특히, 수용자 운동 전·후 근무자 인수인계 시의 취약점을 파악해 근무자 간의 업무분담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했다. 덕분에 운동 근무자와 수용동 근무자 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 수용자 이동 시 계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청주여자교도소 임유진 교위님을 칭찬합니다

2013년 교감 승진 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당시 딸 같이 어린 직원들이 힘든 근무 여건 속에서도 힘든 내색 없이 근무에 임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모두가 에너지 넘치는 분들이었습니다. 당시 함께 했던 직원들 모두가 칭찬받아 마땅한 보석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한 명만 꼽아야 한다면 총무과 임유진 교위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임유진 교위님은 현재도 신규 직원이 대부분인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후배들에게 ‘올바른 길잡이’로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선배들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기도 합니다. 총무과에서 상훈과 복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동료들의 공적을 적극적으로 찾아 포상할 수 있도록 챙겨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후배들에게 동시에 인정받고 있는 임유진 교위님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는 칭찬에 너무 인색한 직원입니다. 그래서 저라도 칭찬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어 많은 직원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선배 중 한 명이 임유진 교위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대신 전합니다. “잘하고 있다. 네가 있어 참 다행이다.”
저 역시 같은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힘이 되어 주어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신 분 : 여주교도소 총무과 교감 정춘교

월간 <교정>이 동료 간에 칭찬을 주고받으며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칭찬합시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내 주변에 꼭 칭찬을 하고 싶은 동료가 있다면 월간 <교정>을 통해 소개해 주세요. 참여해주신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칭찬의 주인공에게는 특별한 하루를 선물해 드립니다.

- 사연은 이메일(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로 보내주세요.
- QR코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른 그림 찾기

두 개의 사진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부분 7개를 찾아보세요.

아래의 사진은 '소원을 말해봐'에 참여해 주신 여주교도소 직원들이십니다. 정춘교 교감의 주선으로 마련된 이번 '소원을 말해봐'는 '세상을 바꾸는 착한 장난감 만들기 캠페인' 참여 활동이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참여해 직접 바느질을 해 인형을 완성했는데요, 남자 직원분들도 바느질을 너무 잘해 아주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봉사활동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부분 7개를 표시한 후 사진을 찍어 이메일(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로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에게는 '소원을 말해봐' 참여기회 또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Before



After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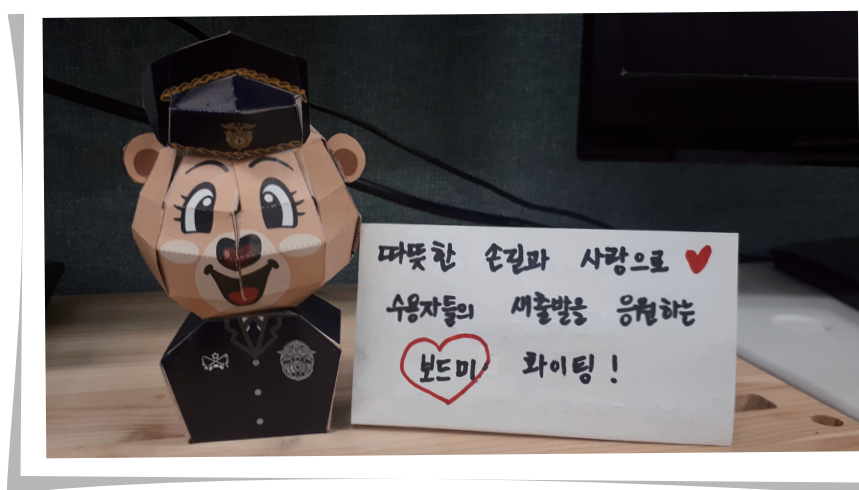
5월호 보드미 만들기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구구치소 교도 김경민



목포교도소 교감 임천식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 정다희

새 생명을 위한 자연의 선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임산부와 아이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배송됩니다!



- 지원대상: 임산부라면 누구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현재 임신상태인 임부
- 지원내용: 12개월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을 80% 할인된 가격
으로 구매, 20%는 본인부담
ex) 5만원 구매시 1만원 본인부담
- 제출서류: 신청서, 임신·출산증명서류
※ 임신·출산증명서류는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나
출생증명서를 말함
-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